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소득변화에 관하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문 효 진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소득변화에 관하여

지도교수 이 석 원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문 효 진

문효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_____ 권 척 주

부위원장 _____ 구 민 교

위 원 _____ 이 석 원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소득변화에 관하여

지도교수 이 석 원

이 논문을 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문 효 진

문효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권 혁 주 (인)

부위원장 구 민 교 (인)

위 원 이 석 원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들의 고용시장에서의 위치와 불안정한 노후상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유지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양적분석’과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양적분석’에서는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중심으로 노동형태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소득의 변화’와 ‘개인연금유지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동패널16차~20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전과 후의 소득상태와 개인연금 유지율을 비교하기 위해 이웃한 년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패널화하였다. 이후, ‘근거이론’ 기반의 ‘질적분석’을 통해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와 ‘프로빗’을 이용한 ‘양적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도 대비 소득변화량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이 임금노동직을 유지한 중·고령 여성들보다 약 853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년도 대비 개인연금유지율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이 임금노동직을 유지한 중·고령 여성들보다 -0.115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노동소득, 연령, 금융자산과 부채, 자녀수, 부동산이 있었으며, 학력 국민연금 가입여부, 부채, 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인터뷰와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한 ‘질적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의 단계에서 총 72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둘째, ‘축코딩’의 단계에서 ‘개방코딩’에서 나누어진 범주들을 인과적조건, 현상,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와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p82 참고). 셋째, ‘선택코딩’의 단계에서 개인연금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6가지 항목을 나누고, 두 그룹 간(해지여성/유지여성) ‘상대적’ 비교를 통해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범주를 이끌어냈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자산관리 교육을 통한 개인연금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경제계획을 세워라’로 정리하였다.

위의 양적 분석결과를 통해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소득의 감소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유지율의 하락을 확인하였으며, 질적 분석결과를 통해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연금 해지자들을 대상으로한 개인연금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노동형태 전환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로서 ‘중·고령층 노동형태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정책’의 마련을 제언한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정보조정책과 더불어 국가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를 제언한다. 넷째, 개인연금의 유형별 연금서비스의 개발과 노동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주기적인 자산관리 교육의 실행을 제언한다.

주요어 : 중·고령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개인연금 유지율, 자영업 전환, 이행노동시장이론, 근거이론

학 번 : 2018-23512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1 |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
| 1. 중·고령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과 1인 가구 증가 | 1 |
|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현실 | 4 |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7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1 |
| 제 1 절 이론적 배경 | 11 |
| 1. 이행노동시장이론: 노동형태의 전환에 따른 소득의 위험성 | 11 |
| 2. 근거이론: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소외감과 경제적 불안정성 | 15 |
| 3.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 | 17 |
| 제 2 절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현황 | 18 |
| 1.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자 전환현황 | 18 |
| 2.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소득 및 개인연금 현황 | 22 |
| 제 3 절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2 |
|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37 |
|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37 |
| 1. 양적 분석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37 |

| | |
|---|-----------|
| 2. 질적 분석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 40 |
| 제 2 절 연구 설계 | 42 |
| 1. 양적 연구 분석자료 및 대상 | 42 |
| 2. 질적 연구 대상선정 및 절차 | 43 |
| 3. 질적 연구의 윤리적 고찰 | 45 |
| 제 3 절 주요변수 | 46 |
| 제 4 절 분석방법 | 49 |
| 1. 노동형태의 전환으로 인한 소득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 분석 | 49 |
| 2.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방법론: 근거이론 | 52 |
| 제 4 장 분석결과 | 54 |
|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54 |
| 제 2 절 실증분석 | 56 |
| 양적 분석: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유지율의 변화 | 56 |
| 질적 분석: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 | 65 |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90 |
|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제언 | 90 |
| 제 2 절 연구의 한계 | 95 |

| | |
|----------------|-----|
| 참고문헌 | 96 |
| Abstract | 102 |

표 목 차

| | |
|--|----|
| [표 1-1] 50세 이상 남·여 임금노동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1 | 1 |
| [표 1-2]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비율3 | 3 |
| [표 2] 개인연금의 종류(연금저축, 연금보험)5 | 5 |
| [표 3] 연령별·연도별 자영업 종사자 증감률 현황19 | 19 |
| [표 4]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 관련 선행연구20 | 20 |
| [표 5] 연도별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 현황22 | 22 |
| [표 6] 2017년(노동패널 20차 기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연소득 현황23 | 23 |
| [표 7] 중·고령 여성 및 중·고령 자영업자 소득 관련 선행연구25 | 25 |
| [표 8] 자영업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분위)평균, 지니계수, 엡킨슨 지수26 | 26 |
| [표 9] 여성자영업자의 개인연금가입률(노동패널 20차 기준)29 | 29 |
| [표 10] 중·고령자의 개인연금가입 관련 선행연구30 | 30 |
| [표 11] 개인연금 계약유지율32 | 32 |
| [표 12] 노후대책이 부족한 이유34 | 34 |
| [표 13] 연구모형별 변수48 | 48 |
| [표 14]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시점별 일반적 특성54 | 54 |

| | | |
|--------|---|----|
| [표 15] |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이 노동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 57 |
| [표 16] | 전환에 따른 빈곤율 변화 | 58 |
| [표 17] |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프로빗 분석) | 59 |
| [표 18] |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유지상태 변화 | 60 |
| [표 19] |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자의 소득변화가 개인연금 가입상태에 미치는 영향(프로빗 분석) | 61 |
| [표 20] |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65 |
| [표 21] |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범주 목록 | 66 |
| [표 22] | 6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연금 유지 vs. 해지 원인 비교 .. | 89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1] |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 12 |
| [그림 2] | 양적 연구모형 1-1 | 38 |
| [그림 3] | 양적 연구모형 1-2 | 39 |
| [그림 4] | 질적연구모형(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 41 |
| [그림 5] | 패러다임 모형 | 53 |
| [그림 6] | 축코딩-패러다임 모형 | 82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중·고령 여성들의 고용 불안정과 1인 가구 증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속도는 가히 기록적일 만큼 빠르게 성장하였고, 이 시기 경제성장의 호황 속에서 여성들은 공식적인 임금노동자로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전에 노동시장으로 진출했던 많은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을 다시 정규직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패널 18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윤수린(2016)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68.9%로 남성 51.3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고령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 50세 이상 남·여 임금노동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단위: 천명)

| 종사구분 | 전체 임금근로자 | 50세 이상 남성 | 50세 이상 여성 |
|------|------------------|-----------------|-----------------|
| 정규직 | 3,454 (61.6%) | 539 (48.65%) | 265 (31.10%) |
| 비정규직 | 2,153 (38.4%) | 569 (51.53%) | 587 (68.9%) |
| 총계 | 5,607 (100%) | 1,108 (100%) | 852 (100%) |

자료) 윤수린(2016). 노동패널 18차 데이터 분석 인용.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그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촉구하거나 자영업과 같은 다른 직종으로의 근로 형태 전환을 부추기기도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45세 이상의 중·고령 여성들의 근로 형태를 조사한 이우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임금노동자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은퇴 이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써 자영업으로 근로 형태 전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이들의 노후를 의지할만한 안전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증가하고 있는 노년기의 이혼, 원만하지 않은 자녀와의 관계, 해체된 가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의 차이로 인한 사별(김혜영, 2014; 이민홍 외, 2015) 등으로 인해 중·고령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들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들을 자영업으로 이끄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정호(2014)는 「1인 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 중·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남성 중·고령 1인 가구 비율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정호(2014)의 연구결과를 [표 1-1]의 내용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중·고령층 여성들은 중·고령층 남성들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나이가 들어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고령 여성들은 노후에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고령에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통계청(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조사결과 역시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을 성별 및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30대~50대 구간에서는 남성 1인 가구의 비율

이 여성 1인 가구보다 높지만, 퇴직 연령에 접어드는 50대~70세 이상의 구간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고령에 접어들면서 독거 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 스스로 생계와 노후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확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 고연령 여성을 선호하는 직업군이 적고, 경력단절을 겪은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다른 전문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중·고령의 나이에 자영업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하게 되는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2] 성별 및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18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단위: 천명)

| 연령 | 전체 1인 가구 | 남성 1인 가구 | 여성 1인 가구 |
|--------|------------------|------------------|------------------|
| 합계 | 5849 (100.0%) | 2906 (100.0%) | 2722 (100.0%) |
| 20세 미만 | 58 (0.9%) | 27 (0.9%) | 32 (1.1%) |
| 20~29세 | 1020 (17.4%) | 503 (17.3%) | 477 (17.5%) |
| 30~39세 | 992 (16.9%) | 637 (21.9%) | 356 (13.0%) |
| 40~49세 | 864 (14.7%) | 546 (18.7%) | 318 (11.6%) |
| 50~59세 | 974 (16.6%) | 543 (18.6%) | 431 (15.8%) |
| 60~69세 | 870 (14.8%) | 370 (12.7%) | 503 (18.4%) |
| 70세 이상 | 1069 (18.2%) | 243 (8.3%) | 826 (30.3%)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2.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현실

현재의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부재는 ‘저 부담-고 급여’ 형태의 국민연금제도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며, 더는 국민연금만으로 개인의 노후소득을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강성호, 정봉은, 김유미(2016)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다른 몇몇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과 같은 개인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한 기대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 개인 스스로 장수 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사적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강성호, 정봉은, 김유미, 2016).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1994년 개인연금이 처음 도입되었고, 2005년 12월 퇴직연금의 실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잇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큰 기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1994년 도입 이후 유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1) 개인연금 신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거나, (2) 기존 개인연금가입자들의 탈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지만,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개인연금의 실효성은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다는 유지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주된 주장이다(전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높고 일시금 수급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성호, 정봉은, 김유미, 2016).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개인연금 중 하나인 퇴직연금 현황의 경우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2014년 말 535.3만 명으로, 2013년 485.2만 명보다 50.1만 명(10.3%)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용근로자인 1,037만 명 대비 51.6%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다르게 유지에 대한 (1) 강제성이 없어 언제든 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2) 가입을 유지함에 따른 충분한 혜택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혜택이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정도에 머물러 있어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merit)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개인연금의 종류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개인연금의 종류(연금저축, 연금보험)

| 구분 | 연금저축(EET) | | | | 연금보험(TEE) |
|----------|---|-------|----|------|-------------------------------|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은행 | 증권 | 생명보험 |
| 상품명 | 연금저축보험 | | 신탁 | 펀드계좌 | 연금보험 |
| 연금(수령방식) | 중신/확정 | 최대25년 | 확정 | 확정 | 중신/확정 |
| 원금보장 | 보장 | | 보장 | 미보장 | 보장 |
| 예금자 보호 | 적용 | | 적용 | 미적용 | 적용 |
| 세제혜택 | 납입: 세제공제혜택(13.2%;지방세포함) 수령: (1)연금: 연금소득세(3.3~5.53%) (2)연금 외: 기타소득세(16.5%) | | | | 납입: 없음 수령: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자료)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17) 인용.

연금에 대한 세제의 종류로는 TEE(Tax-Exempt-Exempt) 방식과 EET(Exempt-Exempt-Tax) 방식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형식으로 연금납부 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 연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법이며, 후자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형식으로 연금납부 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중 ‘연금저축’은 유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금저축의 유지 건수는 477만 건(2014년 9월, 금감원 연금저축 포털)으로 상용근로자 1,037만 명(고용노동부, 201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2014년 이후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저축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능은 더욱 약화하였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원석, 강성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저소득가정의 연금저축 가입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유지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연금저축은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유지를 진작시키기 위한 연금저축 관련 세제 혜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자발적인 개인연금 유지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한 예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경우 2011년에 소득공제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세제 혜택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인 ‘연금보험’ 역시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퇴직금을 비롯한 은퇴자들의 목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도 8.2%에 불과하여 개인연금과 퇴직금을 합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적연금 소

득대체율은 2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강성호, 류건식, 김동겸, 2017), 현재로서는 장기연금수급에 따른 별도의 세제 혜택 역시 부족하여 연금 세제를 통한 개인연금의 장기유지 유도 역시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들의 고용 및 노후 불안정에 대한 해결책인 ‘개인연금 장기유지’를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중·고령 여성들이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행노동시장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전환에 의한 사회적 위험을 이론적인 틀 내에서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연금 장기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형태의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역시 전환을 경험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이 전환과정에서 개인연금 유지와 관련하여 경험한 바를 질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남녀의 기대여명의 차이로 인해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OECD가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여명과 비교하여 OECD 여성은 3년 2개월, 우리나라 여성은 4년 3개월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여성의 고령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 여성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방안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중·고령 여성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결

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다시 임금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재까지 더해져 이들을 무리한 ‘생계형 자영업’의 길로 뛰어 들게 만들고 있다.

중·고령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이들이 은퇴 이전에 충분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겪게 되는 경우 더 큰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경제적 노후준비란, 연금, 보험, 저축 및 고정자산을 의미하는데, 2018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은퇴를 앞둔 중·고령 여성의 상당수가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국민연금 이외에는 사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과거에 비해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덧붙여 국민연금마저도 수급 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점진적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실질적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간극(gap)에 따른 소득 공백을 견뎌내야한다. 즉,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소득 공백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령 여성들의 자영업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중·고령 여성들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임금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음식점업과 소매업의 경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창업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따른 시장 내의 높은 경쟁률로 퇴출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다. 이에 덧붙여, 중·고령 여성들의 자영업으로의 무리한 전환은 본인의 은퇴자금을

투자의 명목으로 자영업에 쏟아부을 확률을 높이며, 이에 따라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이러한 무분별한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을 또 다른 경제적 위험에 노출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유지에 관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나(안종범, 김재호, 2012; 김재호, 2013; 강성호, 김유미, 정봉은, 2016), 개인연금 유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위한 패널 분석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문용필, 2012). 특히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노동자, 그중에서도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연금 유지에 대한 중단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최유진, 여운경, 2015;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 2018; 한겨레, 김교성, 2019).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현실을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소득의 변화와 개인연금 유지율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패널 자료를 통한 양적 분석으로써 자영업 전환에 따른 소득의 변화와 개인연금 유지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2012년부터 2017년(16차~20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로 하는 패널표본구성(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써 본 연구에 분석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질적 연구를 위해 임금노동직 시절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던 중·고령 여성 중, 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근로 형태를 전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때,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개인연금을 해지한 여성들의 인터뷰와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여성들의 인터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각각 느끼는 개인연금의 의미와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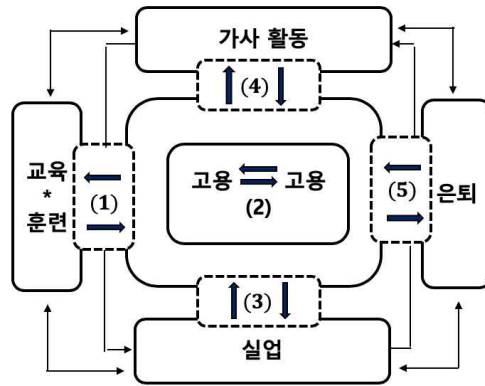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이행노동시장이론: 노동형태의 전환에 따른 소득의 위험성

1980~1990년대 유럽의 장기 실업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의 Günther Schmid(귄터 슈미트)에 의해 제기된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al Labor Markets: TLM)은 한 개인의 생애과정 동안 발생하게 되는 근로유형 상태 간의 이행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을 관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Schmid, 2009). 즉, 이행노동시장이론은 개인의 다른 노동력 및 환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근로유형 상태 간의 이동 과정을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호하는 장치(정원호 외, 2011)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분석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생애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섯 가지의 근로유형 간의 이행 국면을 분석하는 ‘분석적인 개념’과 근로 상태 간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통합 및 완전고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규범적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근로유형 이행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는 (1) 교육·훈련 ↔ 고용 간의 이행, (2) 고용 ↔ 고용 간의 이행, (3) 고용 ↔ 실업 간의 이행, (4) 고용 ↔ 가사 활동 간의 이행, (5) 고용 ↔ 은퇴 간의 이행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슈미트는 이 다섯 가지 고용유형 간의 관계성을 [그림 1]에서처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자료) Schmid (2002a).

Schmid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유형 간의 이행에는 좋은 이행과 나쁜 이행이 존재한다. 여기서 나쁜 이행이란 기존의 문(기존의 직업)이 닫혔는데도 새로운 문(새로운 직업)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Schmid and Gazier, 2002), 이때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이행의 위험을 관리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고용 취약계층으로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에 따라 나쁜 이행으로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을 통한 이행 과정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행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로, (1) 교육·훈련 ↔ 고용 간의 이행이다. 이는 학교 교육제도를 통한 ‘정규교육훈련’과 근로자와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통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보장되는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의미한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이행은 고용시장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기술 및 자질의 부족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2) 고용 ↔ 고용 간의 이행이다. 이는 소득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행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동, 임금노동과 자영업 간의 이동 등이 있다. 이 경우 이행과정에서 소득의 감소 또는 소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쁜 이행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세 번째, (3) 고용 ↔ 실업 간의 이행이다. 이는 소득이 보장되던 고용 상태에서 해고, 퇴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 고용 상태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빈곤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다.

네 번째, (4) 고용 ↔ 가사 활동 간의 이행은 양육이나 보육을 위해 임금 노동시장에서 비임금 노동시장(가사 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득손실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는 경력단절로 인해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나쁜 이행이 존재한다.

마지막, (5) 고용 ↔ 은퇴 간의 이행은 근로자가 나이가 들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 또는 근로 능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고용 상태에서 비고용 상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은퇴 전 노후준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육체적,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쁜 이행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으로의 전환 과정은 위의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계별로 나쁜 이행의 위험에 노출된다. 즉, 중·고령 여성들은 임금노동직 이후, 실업을 경험하고 한동안은 가정을 위한 가사 활동에 전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은퇴의 길목에서 자영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들 사이에는 이행을 위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며, 이때 여성들은 소득 공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중·고령 여성들의 자

영업 전환은 대체로 전문직종 여성보다는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임금 근로 여성이었던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선택하는 자영업의 종류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음식업 또는 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이행의 나쁜 예로써, 이들의 소득을 줄이고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이 처음 제기되었던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나쁜 이행으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노동시장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행을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중, 덴마크의 ‘유연안정성모형’은 이행노동시장이론 관련 정책에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Larsen, 2010). 이 모형은 직무순환제도, 휴직제도, 직업훈련 등을 도입하여 직업군 간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끌어냈고, 12%였던 덴마크의 실업률을 3%대로 하락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핀란드의 ‘활기찬 노화(active ageing)’ 정책 역시 고용 ↔ 은퇴 간의 이행 모범사례로써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 및 고용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인 은퇴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즉, 이행노동시장이론은 인간의 생애에서 겪게 되는 결정적인 이행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및 나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이나 감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형태 간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나쁜 이행)과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현대와 같이 개인의 다양한 직업으로의 전환이 유연해지고 전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소득 공백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공백기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적절한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소득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 유지율 분석을 위한 기본 이론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2. 근거이론: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소외감과 경제적 불안정성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Milliken & Schreibe, 2003) ‘상징적 상호작용론’ (Blumer, 1969)을 기초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써, 1967년 Glaser & Strauss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이론은 이미 정립되어있는 개념적 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회구조 또는 사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Glaser & Strauss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사물에 대해 자신이 부여한 의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데, 이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수집된 사회 심리적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도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근거이론의 연구 과정은 첫째, 문헌, 관찰,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속성(properties)과 차원(dimension)에 따라 논리적·체계적으로 개념정리를 한 후, 둘째,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자료를 분해 및 개념화하여 통합하는 분석의 과정인 코딩단계를 거치게 된다. 근거이론에서의 코딩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수집한 기초자료와 현상에 이름을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개방 코딩’, (2)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들을 나타내는 범주적 속성과 패러다임에

따라 하위범주와 연결해 하나의 도식(diagram)으로 개념화하는 ‘축 코딩’, 그리고 (3)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통합 및 정교화시키는 과정인 ‘선택 코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코딩의 과정을 거친 후,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을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과정(process)을 거치고, 넷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즉, 근거이론은 위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귀납적으로 발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이론을 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근거이론의 주된 자료수집의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대상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직접 조사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적 분석과의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연구자에게 특정 사회구조에 대한 직관력을 제공하여 구조와 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통찰력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Strauss & Corbin, 1998), 최근에는 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에 사용되고 있다(Strauss & Corbin, 1998; Bryant & Charmaz, 2007; Morse, 2001).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의 개인연금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의 영향과 개인연금 유지율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개인연금을 해지한 중·고령 여성들과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들의 인터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인연금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느끼는 개인연금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노동 취약계층 중의 하나인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이론적 정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이론개발의 기초로써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봄에 따라,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사례분석을 위한 기본이론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3.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과 납부에 대한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은 가입자의 경제활동 상태와 근로 형태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의 중·고령 여성들의 근로 형태는 (1) 임금직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2) 임금직에서 자영업으로의 근로 형태를 전환한 여성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다. 이 여성들은 결혼, 출산, 아이 양육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의 단절을 겪은 여성들로서, 임금직 노동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자영업으로 전환을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단절은 여성들이 그들의 노후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높게 만들며, 남성들보다 연금가입 및 유지율을 낮게 만든다. Berrendt(2002)는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별과 나이를 조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대는 어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는 경제 활동상태를 추가하여 임금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경제적 요인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연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요인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이란, 중·고령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소득은 노동소득과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김원식, 1996; 안종범, 전승훈, 2005; 여윤경, 2005; 김원섭, 강성호, 2008; 박창제, 2008; 송윤아, 2009). 특히, 노동소득이 고정적인 임금노동직에 비해 자영업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개인연금의 납입액에 대한 고정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유지율을 낮추게 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역시 임금노동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생계형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의 감소는 개인연금의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형태의 전환이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절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현황

1.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자 전환현황

자영업자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유급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원과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통계청, 2015).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9년 기준 566만 2천 명으로 2017년 573만 3천 명 이후 소폭의 감소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자영업자의 수는 매년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연령별 자영업자

수에서 경제활동 연령대인 30대부터 은퇴 직전인 60대 전까지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59만 2천 명에서 10.9%가 증가한 176만 5천 명(2019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연도별 자영업 종사자 증감률 현황 (단위: 천명)

| 연령 | 2017.08 | 2018.08 | 2019.08 |
|--------|------------------|-------------------|--------------------|
| 합계 | 5,733 (0.0%) | 5,681 (-0.9%) | 5,662 (-1.2%) |
| 15~29세 | 147 (0.0%) | 167 (+13.6%) | 174 (+18.3%) |
| 30~39세 | 739 (0.0%) | 697 (-5.7%) | 714 (-3.5%) |
| 40~49세 | 1,499 (0.0%) | 1,447 (-3.5%) | 1,334 (-11.0%) |
| 50~59세 | 1,756 (0.0%) | 1,702 (-3.1%) | 1,675 (-4.6%) |
| 60세 이상 | 1,592 (0.0%) | 1,668 (+4.8%) | 1,765 (+10.9%)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이러한 현상은 중·고령층 노동자들이 임금노동 시장으로부터의 퇴출 또는 자발적 은퇴 이후, 노후소득보장의 수단 또는 다른 근로 형태로의 이행과정에서 거치는 임시직의 형태로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자들 역시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 과정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하나의 퇴직형태로 소개하였는데, 이중 장지연(2003)은 상용직 임금 근로에서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노후보장 및 경력이동의 과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분석하였고, 지은정(2006)은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중·고령자의 다양한 퇴직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중·고령자의 근로 증진을 돕고자 하였다.

[표 4]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 관련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목표 | 방법론 | 연구내용 |
|----------------|---|---|---|
| 장지연. (2003) | (1)완전은퇴에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유형이 하나의 경력 이동의 유형으로 성립하는가 (2)상용직임금 근로에서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경력이동이 노후보장 대안적인 경력이동의 과정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분석 | (1)전일제로 일하던 고 연령 근로자가 어떤 경로로 전일제근로상태를 이탈하게 되는지 경제적 위험도모형 분석. (2)관찰기간 중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전일제를 이탈한 사람, 실업상태로 들어간 사람,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한 사람, 변화가 없었던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사건사 분석 | 1.임금근로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비 임금근로자보다 높다. 2.비경제활동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비 임금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근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3.고 연령 취업자의 전일제 이탈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건사 분석):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요인들은 전일제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이탈가능성 높으며, 종사상지위, 산업,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 4.임시직 또는 자영업 경로를 통한 경력이동: 여성의 경우, 35~54세는 80%가 정규직을 유지하지만, 55~64세는 단지 53%만이 정규직에 남고, 30.2%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함 |
| 지은정. (2006) |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과 중·고령자의 다양한 퇴직형태를 분석하여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을 돕고자함 | (1)5년(2000~2004)동안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을 살펴보고 집단 간 차이검증 (2)완전퇴직/점진적 퇴직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중·고령자의 종사상 지위변화: 3차 자료의 종사상 지위를 7차 자료까지 유지하는 중·고령자는 50.2%(1,677명)이었고, 변화한 경우는 455명(13.3%)이었음: 파트타임 혹은 자영업으로 전환 (1)전통적 퇴직개념의 부적합, (2)부족한 사회보장제도, (3)근로소득의 대안, (4)재취업의 실패 2.회귀분석결과: (1)일반적 특성: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가구주 비율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점진적 퇴직이 높으나, 가구근로소득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단, 연구에 대상인 중·고령여성은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로 노동시장에 잔류하지 못했음). (2)로지스틱 회귀분석: 점진적 퇴직의 유의한 변수(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구근로소득, 3차 연도의 종사상지위) |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중·고령 임금노동자 남·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장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자영업 전환현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이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원인분석과 퇴직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환이 일어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임금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자영업으로 전환한 임금노동자의 비율 및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이라는 노동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과 임금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두어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 5]는 노동패널 20차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패널의 2012년부터 2017년 5개년 동안 이웃한 년도 에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사람들 중, t 시점에는 임금노동자이었다가 $t+1$ 시점에 자영업자로 이행한 케이스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을 형성하였다.

둘째, 분석대상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7년 5개년 동안 이웃한 년도 에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사람들 중, t 시점과 $t+1$ 시점 모두 임금노동자이었던 케이스를 추출하여 비교집단을 형성하였다.

즉, t 는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점이고, $t+1$ 은 t 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의 조사를 기록한 내용으로써 분석대상은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근로 형태의 전환을 한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비교집단은 임금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45명의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근로 형태를 전환하였으며 그 증가 폭은 임금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비교집단에 비해 매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 현황 (단위: 명)

| | t | t+1 | 전체 | | 분석대상 (임금→자영) | | 비교집단 (임금→임금) | |
|----|------|------|-------|--------|-----------------|--------|-----------------|--------|
| | | | n | % | n | % | n | % |
| 1 | 2012 | 2013 | 839 | 16.12 | 26 | 7.54 | 813 | 16.73 |
| 2 | 2013 | 2014 | 943 | 18.12 | 58 | 16.81 | 885 | 18.21 |
| 3 | 2014 | 2015 | 1033 | 19.85 | 75 | 21.74 | 958 | 19.72 |
| 4 | 2015 | 2016 | 1135 | 21.81 | 89 | 25.80 | 1046 | 21.53 |
| 5 | 2016 | 2017 | 1254 | 24.10 | 97 | 28.12 | 1157 | 23.81 |
| 전체 | | | 5,204 | 100.00 | 345 | 100.00 | 4,859 | 100.00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2.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소득 및 개인연금 현황

노동패널 20차(2017년) 자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의 연 소득에서 중년층(45~54세) 여성 자영업자의 소득이 고령층(55세 이상) 보다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미혼인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 2차 산업, 1차 산업의 순으로 높았다. 즉,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고령층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중·고령 여성들보다 훨씬 더 낮은 연 소득 수준을 얻는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6] 2017년(노동패널 20차 기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연소득 현황 (단위: 만원)

| 변수 | 총 근로소득 | | |
|--------------|--------|----------|-----------|
| | | 평균 | 표준편차(S.D) |
| 연령집단 | 45-54세 | 6171.11 | 4151.33 |
| | 55-64세 | 4579.78 | 3466.31 |
| | 65+ | 2866.14 | 3260.03 |
| 혼인상태 | 미혼 | 2484.44 | 2078.02 |
| | 기혼 | 4595.67 | 3865.08 |
| | 기타 | 3458.58 | 3594.3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3884.33 | 3324.72 |
| | 대졸이하 | 6842.71 | 4605.36 |
| | 대학원이상 | 11200.00 | 10990.86 |
| 업종 | 1차산업 | 2457.91 | 2491.59 |
| | 2차산업 | 5632.94 | 3936.79 |
| | 서비스업 | 5787.03 | 6413.19 |
| 직종 | 관리전문직 | 7798.60 | 7864.83 |
| | 사무직 | 9350.80 | 4516.36 |
| | 판매서비스직 | 5070.34 | 3587.43 |
| | 숙련기능직 | 2698.49 | 2518.87 |
| | 단순노무직 | 5709.91 | 4951.99 |
| 개인연금 가입여부 | 가입 | 8326.06 | 5617.04 |
| | 미가입 | 4890.35 | 3713.97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기존에 선행되었던 권우현 외(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자영업 진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자영업이 여성들에게 임금 근로보다 더 나은 소득과 환경을 제공해서라기보다는 임금 근로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한 여성들이 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차선택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 임금 근로에 임했던 경력이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한번 임금 근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이 제한과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우므로 중·고령 여성들은 자영업과 같은 근로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중·고령 여성들이 임금노동에서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최소한의 사회적·제도적 보호 장치조차 없이 근로 형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가 일어났을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이는 그들의 노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2016)의 조사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음식, 숙박업 등과 같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의 경우, 창업비용은 2015년 기준 9,234만 원인데 비해 사업소득은 같은 해 4,397만 원으로, 창업비용이 사업소득을 초과하여 창업으로 인한 가구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은퇴자금으로 손쉽게 누구나 자영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그 첫 번째 문제이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대부분 창업제도가 청년층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중·고령층에게 제공되는 자영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두 번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중·고령 여성들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의 변화에 관한 문제연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고령 여성 및 중·고령 자영업자의 소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강성호·김경아(2008)는 여성의 노동참여형태에 따른 노후소득 수준의 변화를, 손연정(2019)은 중·고령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7] 중·고령 여성 및 중·고령 자영업자 소득 관련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목표 | 방법론 | 연구내용 |
|------------------------|--|--|---|
| 강성호, 김경아. (2008) | 근로시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은퇴시기에 여성의 노후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형별, 성별 관점에서 분석 | (1)성별 노동시장 이행성과: 마코프 전환확률 모형 분석 (2)연금수급권 및 노후소득의 성별 격차 분석(성별 연금수급권 획득 격차분석/ 연금소득 수준의 성별 격차 분석): 기술통계 분석 | 근로시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비정규직, 미취업 등으로(노동시장 뿐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모두 고려한 관점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음. 이는 연금제도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여성이 은퇴 후 개별적 연금수급권 획득이 남성에 비해 낮음 |
| 손연정. (2019) | 중·고령층 자영업자의 개인 및 가구 소득과 가계지출 실태를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목적 | (1)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유형화 및 결정요인 분석 (2)다항프로빗 분석 | 1.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동유형 2.중·고령층 자영업이행과 3.중·고령층 자영업이 소득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 4.중·고령층의 자영업 선택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위의 연구들은 중·고령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태를 분석하거나 여성 노동자들의 소득을 남성 노동자들의 소득과 비교하여 성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고령층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기존 임금노동자가 은퇴 시기에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변화에 대한 분석’

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덧붙여 임금노동자의 은퇴 이후, 근로 형태의 전환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를 분석대상(임금→자영)과 비교집단((임금→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표 8] 자영업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분위)평균, 지니계수, 엡킨슨 지수변화

| | | t | t+1 | 증감 |
|--------------------|-----------------|----------|----------|---------|
| 노동소득평균 | 분석대상 (임금→자영) | 3698.12 | 3737.18 | +39.06 |
| | 비교집단 (임금→임금) | 4494.31 | 4616.59 | +122.28 |
| | 전체 | 4,096.22 | 4,176.89 | 80.67 |
| 노동소득 10분위 평균 | 분석대상 (임금→자영) | 3.05 | 3.02 | -0.03 |
| | 비교집단 (임금→임금) | 3.68 | 3.77 | +0.09 |
| | 전체 | 3.37 | 3.40 | +0.03 |
| 노동소득 지니계수 | 분석대상 (임금→자영) | 0.473 | 0.499 | 0.026 |
| | 비교집단 (임금→임금) | 0.373 | 0.375 | -0.002 |
| | 전체 | 0.42 | 0.44 | +0.01 |
| 노동소득 Atkinson지수 | 분석대상 (임금→자영) | 0.399 | 0.439 | 0.04 |
| | 비교집단 (임금→임금) | 0.260 | 0.264 | -0.006 |
| | 전체 | 0.33 | 0.35 | 0.02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위의 [표 8]은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시점별 노동소득 평균, 10분위 평균, 지니계수, 엡킨슨 지수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노동

소득 평균의 측면에서 비교집단(임금→임금)은 122.28만 원 대폭 증가한 데 비해, 분석대상(임금→자영)의 경우 근로 형태 전환으로 인해 39.06만 원 소폭 증가하였다. 즉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임금노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노동소득에 있어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노동소득 10분위 평균에서 비교집단(임금→임금)은 10분위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분석대상(임금→자영)의 경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임금노동을 유지하는 집단은 소득분위가 소폭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집단은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악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두 집단의 노동소득 평균의 변화 추이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니계수는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지니계수의 측면에서 비교집단(임금→임금)은 지니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소폭 진행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분석대상(임금→자영)은 지니계수가 0.026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노동을 계속 유지하는 집단에 비하여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집단이 노동소득의 분포 측면에서 좀 더 불평등하게 변화하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앳킨슨 지수 측면에서 비교집단(임금→임금)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분석대상(임금→자영)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위에서 기술한 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진행하는 집단이 분석대상보다 소득의 분포 측면에서 좀 더 불평등하게 변화함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상당수의 중·고령 여성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사적연금·사적보험과 같은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은 동일 연령층의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표된 KiRi(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21.6%로,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인 17.4%에 비해 4.2%p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령인 경우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평균값의 두 배 이상 높은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노후 빈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제도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중·고령 여성이라는 연령과 성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영업이라는 직종 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운용되고 있어, 일반 임금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차별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입률과 유지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변수로 하여 각 변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9]는 노동패널 20차를 기준으로 현재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가입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고령의 정의는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의한 45세 이상~55세 미만의 중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포괄한 개념으로 중·고령을 정의하고자 한다. 분석은 연령집단, 혼인상태, 교육수준, 업종, 직종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률을 살펴보았다.

[표 9]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가입률 (노동패널 20차 기준)

| 변수 | 개인연금가입률 | | |
|------|---------|-----|-------|
| | | | % |
| 연령집단 | 45-54세 | 가입 | 13.42 |
| | | 비가입 | 86.58 |
| | 55-64세 | 가입 | 7.06 |
| | | 비가입 | 92.94 |
| | 65+ | 가입 | 4.14 |
| | | 비가입 | 95.86 |
| 혼인상태 | 미혼 | 가입 | 9.09 |
| | | 비가입 | 90.91 |
| | 기혼 | 가입 | 8.05 |
| | | 비가입 | 91.95 |
| | 기타 | 가입 | 7.10 |
| | | 비가입 | 92.9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가입 | 6.04 |
| | | 비가입 | 93.96 |
| | 대졸이하 | 가입 | 17.03 |
| | | 비가입 | 82.97 |
| | 대학원이상 | 가입 | 20.00 |
| | | 비가입 | 80.00 |
| 업종 | 1차산업 | 가입 | 6.36 |
| | | 비가입 | 93.64 |
| | 2차산업 | 가입 | 9.65 |
| | | 비가입 | 90.35 |
| | 서비스업 | 가입 | 10.94 |
| | | 비가입 | 89.06 |
| 직종 | 관리전문직 | 가입 | 5.26 |
| | | 비가입 | 94.74 |
| | 사무직 | 가입 | 8.33 |
| | | 비가입 | 91.67 |
| | 판매서비스직 | 가입 | 11.89 |
| | | 비가입 | 88.11 |
| | 숙련기능직 | 가입 | 6.72 |
| | | 비가입 | 93.28 |
| | 단순노무직 | 가입 | 4.76 |
| | | 비가입 | 95.24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분석결과에 따른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가입률을 살펴보면, 첫째, 연령집단의 측면에서 45~54세(중년층) 여성 자영업자의 가입률이 55세 이상의 고령층보다 높았다. 둘째, 혼인상태의 측면에서 미혼이 기혼이나 기타보다 가입률이 소폭 높았다. 셋째,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보다 가입률이 월등히 높았다. 넷째, 업종의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2차 산업이 1차 산업보다 가입률이 높았다. 다섯째, 직종의 경우는 판매서비스업과 사무직의 가입률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 즉, 여성자영업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차 산업에 종사할수록 개인연금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자영업자의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연금 신규가입자의 감소 혹은 기존 개인연금가입자들의 탈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인연금가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경아·한정림(2012)의 중·고령 노동자의 공·사적연금 납부현황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차경욱(2015)은 가계특성에 따른 개인연금가입 여부 및 유형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0] 중·고령자의 개인연금가입 관련 선행연구

| 연구자 | 연구목표 | 방법론 | 연구내용 |
|------------------------|---|--|--|
| 김경아, 한정림. (2012) | (1)국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현황, 공·사적 연금제도 납부현황분석, (2)근로유형별격차를 고려한 공·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추정을 통한 향후 노후 소득보장수준추정 | (1)직업력 자료를 대상으로 근로유무 및 근로유형 차이를 고려한 개인의 노동현황과 공·사적 연금가입현황파악 (2)개인별 공·사적 연금 예상연금액, 소득대체율 및 수익비 추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수준파악 | 1.중·고령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경제상태이며, 공·사적 연금 역시 취약함 2.향후 이들의 근로유형별 공·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추정결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의 경우 연금납부를 충실히 할 경우 향후 좀 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 |

| | | | |
|----------------|---|---|--|
| 차경옥 (2015). | (1)개인연금 가입유형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여부와 가입유형별 납입액, 납입기간 등 특성 분석 (2)가계의 사회, 경제적 특성, 은퇴기대와 노후준비관련 특성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유형에 차이 비교분석 | (1)개인연금 가입 결정&납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Heckman의2단계추정 -1단계: 가입결정 분석 (전체가계대상) 프로빗(Probit)분석 -2단계: 연납입액 분석 (개인연금 가계대상) 회귀분석(OLS) | 1.개인연금 가입가계(55%)중 연금저축가입가계가 연금보험가계보다 2배 이상이었으나,연간납입액은 연금보험이 더 높고 가입기간이 더 길었음 2.개인연금 가입결과와 납입액규모에 영향 요인: (1)배우자가 있고,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직이며, 자가를 보유하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이 높음 3.개인연금 미가입자의 53%는 향후 개인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단, 경제적 이유 제외) |
|----------------|---|---|--|

이들의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노후보장체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며,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공적연금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개인연금 가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김정아·한정립(2012)은 근로유형별 경제적 격차와 공·사적연금의 납부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 발생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고연령 노동자들의 직업이동과 이로 인한 계층별 노후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 역시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각 연금의 특성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을 뿐 개인연금의 유지율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특히, 노동형태의 전환이 개인연금 유지율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의 노동형태의 전환이 일어났던 중·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정책적 제언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 3 절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ECD는 공·사적연금을 포괄한 노후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기존 소득의 70~80%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은 OECD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3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어, 1994년 도입 당시 약 4,865천 건으로 최고 수준의 신규가입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약유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류건식(2004)은 1994년 개인연금 도입 이후 2001년까지의 유지율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의 연구결과 역시 2017년 통계청 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표 11] 개인연금 계약유지율 (경과년도 별; 단위: 천 건, %)

| 구분 | 94년 도입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유지율 |
|----------|------------------|------------------|------------------|----------------|----------------|------------------|------------------|------------------|------|
| 은행 | 1,840 (2,340) | 1,740 (325) | 1,617 (181) | 1,801 (120) | 1,486 (105) | 1,340 (82) | 1,309 (102) | 1,334 (144) | 39.2 |
| 우체 국 | - | - | - | - | 83 (16) | 67 (9) | 71 (16) | 77 (16) | - |
| 생명 보험 | 1,643 (1,893) | 2,182 (1,488) | 2,406 (1,079) | 2,139 (548) | 1,692 (257) | 1,598 (208) | 1,651 (292) | 1,506 (26) | 26.0 |
| 손해 보험 | 390 (446) | 664 (399) | 820 (308) | 753 (177) | 607 (88) | 582 (78) | 628 (178) | 611 (47) | 35.5 |
| 투신 운용 | 233 (287) | 373 (259) | 344 (61) | 304 (62) | 246 (7) | 224 (20) | 210 (7) | 205 (3) | 33.8 |
| 합계 | 4,107 (4,865) | 4,960 (2,471) | 5,187 (1,630) | 4,997 (908) | 4,115 (473) | 3,811 (2,396) | 3,869 (2,595) | 3,733 (2,237) | 33.2 |
| 증감 율 | - | 20.8 | 4.6 | 3.7 | 17.6 | 7.4 | 1.5 | 3.5 | - |

자료) 류건식(2004) 인용. 주: 1)유지율= 2001년 보유계약건수 /94년~01년의 신규가입건수 합계,

2) ()안은 신규가입건수

위의 표는 류건식(2004)의 조사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된 개인연금 신규가입 건수(괄호 안의 수치)와 유지율이다. 신규가입 건수는 처음 개인연금이 도입된 1994년과 비교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기준 개인연금의 유지율은 33.2%로 큰 폭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연금 신규가입자의 감소가 아닌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율’이다. 위의 표에서 2001년 기준 개인연금 유지율은 33.2%로, 2001년 보유계약 건수인 약 373만 건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규가입 건수의 합계인 약 1,158만 건으로 나눈 값으로써,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약 785만 건의 신규가입이 해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개인연금 중도 해지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1) 개인연금이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금납부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고, (2) 임금노동자에서 생계형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져 해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3) 개인연금의 낮은 수익률 또는 (4)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 및 (5)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의 부족과 같은 점도 개인연금 해지의 이유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연금의 중도 해지율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6) 노동시장 구조 및 현금에 대한 흐름 분석을 통한 유형별 개인연금 서비스의 결여와 (7)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2017년 보험연구원에서 조사한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결혼, 전세비용, 자녀 양육 등과 같은 소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소득이 너무 낮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노후대책이 부족한 이유

(단위: %)

| 구분 | 현재 시점의 소비가 높아서 | 소득 부족 | 아직 젊어서 | 부채 상환 위해서 | 관심 부족 | 투자 실패로 자금 부족 | 자산 관리 실패 | 공적 연금 충분 |
|-----------|-------------------------|----------|-----------|-----------------|----------|-----------------------|----------------|----------------|
| 전체 | 54.4 | 28.2 | 9.5 | 2.5 | 2.1 | 1.7 | 0.8 | 0.8 |
| 임금 노동자 | 50.7 | 18.7 | 25.3 | 4.0 | 0.0 | 0.0 | 0.0 | 1.3 |
| 자영업 | 63.2 | 18.4 | 2.6 | 2.6 | 7.9 | 5.3 | 0.0 | 0.0 |

자료) 보험연구원(2017) 인용.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현재 시점의 소비가 높아서’라는 문항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63.2%로 임금노동자 50.7%와 비교해 12.5%p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르는 부가적인 비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자영업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상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과 이에 따른 소비 패턴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동일조사에서 ‘소비지출 관리실패’ 문항에 대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응답률이 0.0%를 보여주고 있어 자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처해있는 불안정한 소득과 지출패턴 및 자산관리에 대한 문제 인식 결여는 그들의 노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 노후 빈곤에 처할 위험은 더욱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지출패턴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 가능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그들 스스로 자산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의 유지가 선택이 아닌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써 인식하도록 하여 노동형

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지출패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생애 전반에 걸친 ‘현금흐름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국 경제는 1980년~199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연평균 약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노동시장에서는 누구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며, 1980년대 당시 국내 총생산이 1.0% 증가할 때마다 약 5.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이병희 외, 2008).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됐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역시 줄어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그 당시 노동시장에서는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의 임금근로자가 정규직에서 비정규, 일용근로, 또는 자영업으로의 근로 형태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대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켰다. 즉,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그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애 동안의 현금자산 흐름에 대한 명확한 미래 계획 역시 노동형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하다. 경제계획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연금 가입은 개인연금 유지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개인연금 해지자들은 가입 당시의 소득과 소비 패턴만 고려하여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분석과 경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득의 감소나 공백이 발생했을 시, 연금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연금의 해

지를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현금흐름분석’이란, 재무 분석 기법의 하나로써 일정 시점의 현금의 가치와 변동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대한 계획을 위한 분석을 뜻한다. 앞서 살펴봤던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 설명하였듯, 한 개인은 생애과정 동안 다섯 가지 형태의 근로유형 상태 간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즉, 1년 전에는 대기업의 정규직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결혼, 양육, 실업 은퇴와 같은 이유로 개인연금 가입 당시와는 달라진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이렇듯 현재 소득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투자해야 하는 연금의 경우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분석과 경제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기치 못한 현금흐름의 문제로 인해 개인연금 중도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이론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임금노동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하고, 전환 이후 나타나는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와 그들이 느끼는 개인연금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가입 유지율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양적 분석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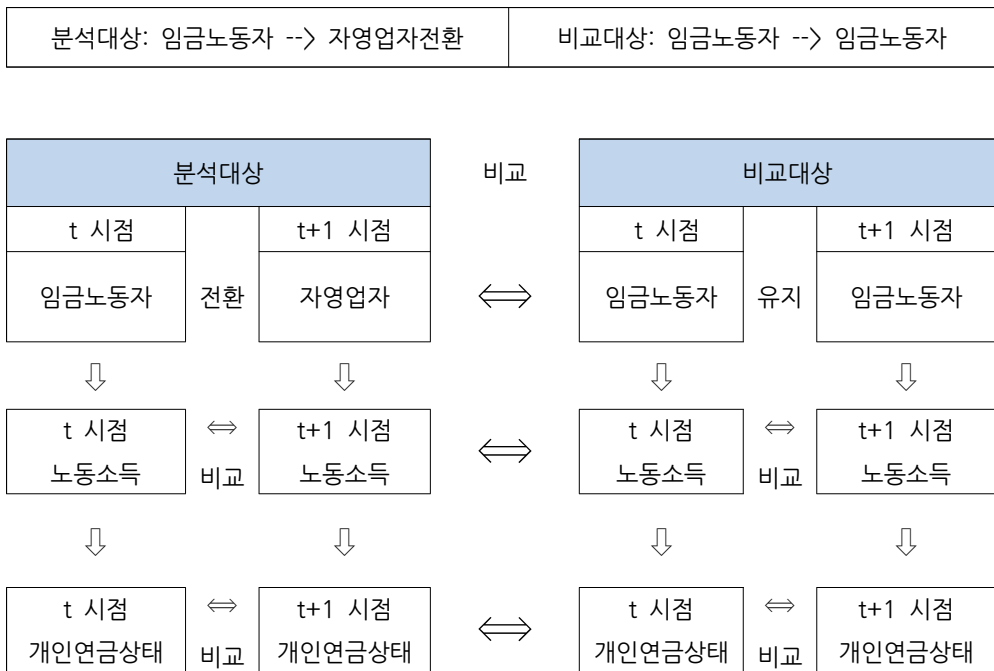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16차~20차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로 하는 패널표본구성(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 시장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특히,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개인연금 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개인연금가입 결정요인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형태의 전환에 따른 소득변화와 이에 따른 개인연금의 유지상태 변화에 대한 문제를 실증할 수 있도록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양적연구문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개인연금 유지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양적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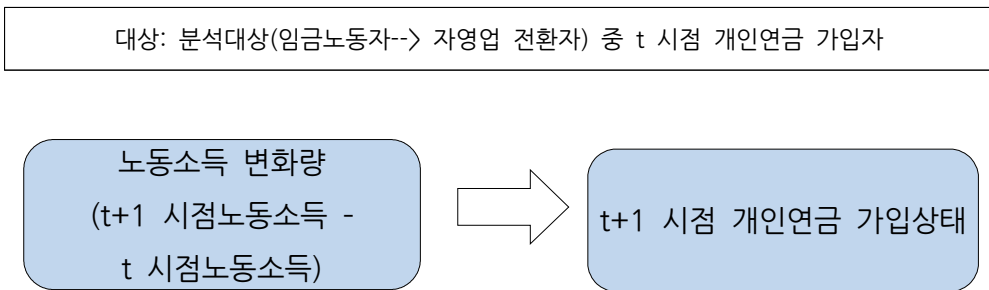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은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전·후 시점(t, t+1)에서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 여부에 따른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노동소득의 차이를 확인하여, 노동형태 전환 여부가 가구의 노동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고, 이에 따른 개인연금유지율의 변화를 실증하는 모형이다. 「연구모형 1-1」에서는 t 시점과 t+1 시점에서 분석대상과 비교 대상 간의 노동소득 변화와 개인연금상태의 변화를 비교한다.

[그림 2] 연구모형 1-1



「연구모형 1-2」에서는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 중 t 시점에 개인연금에 가입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개인연금가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는 모형이다.

[그림 3] 연구모형 1-2



| 통제변수 |
|-----------|
| 연령집단 |
| 혼인상태 |
| 교육수준 |
| 배우자 유무 |
| 자녀유무 |
| 공적연금 가입여부 |
| 금융자산 |
| 부채 |
| 부동산 소유여부 |
| 업종 |
| 연도효과 |

2. 질적 분석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임금노동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환 이후 나타나는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와 그들이 느끼는 개인연금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양적 분석의 연장선에서 임금노동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개인연금을 해지한 중·고령 여성들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들의 사례를 함께 조사하여 이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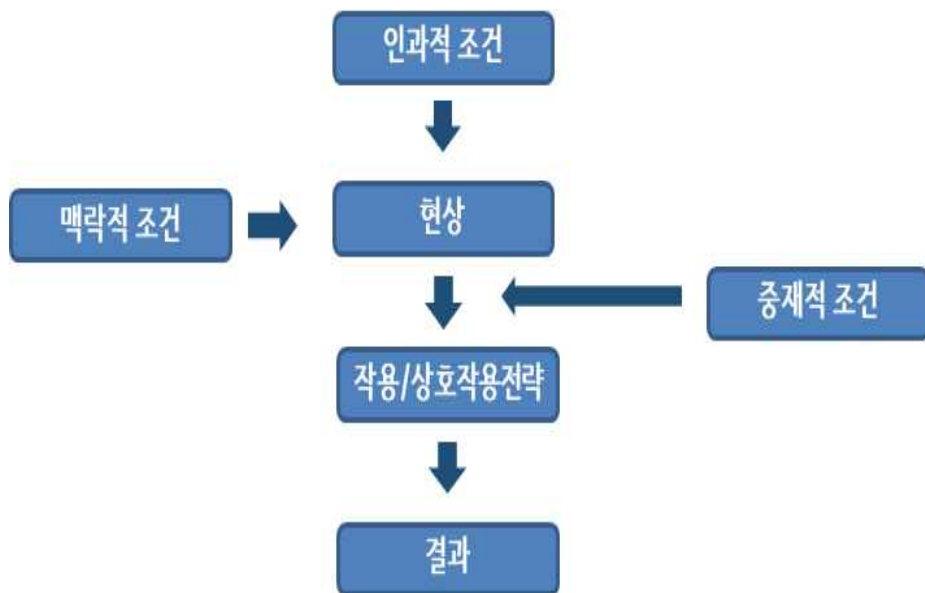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통한 인터뷰 형식의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그들이 느끼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의 개인연금유지에 대한 사회적 의미 및 자영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여 개인연금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개인연금을 해지 한 중·고령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연구문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질적 연구모형 」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의 연구모형으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방 코딩 과정에서 만들어진 범주들을 연구의 특성에 맞게 짜인 틀에 넣고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 이를 통해 각 범주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교차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 맥락적 조건 -> 중재적 조건 -> 작용/상호작용 -> 결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연구모형의 과정은 축 코딩의 진행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4] 질적 연구모형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참고) 최영준 (2015).

제 2 절 연구 설계

1. 양적 연구 분석자료 및 대상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가진 자료로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있는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차 조사(2017년)까지 완료되었다. 제20차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로 응답자 수는 98표본 11,880명, 통합표본 13,774명으로 총 25,654명에 달한다(한국노동패널 1~20차연도 조사자료 User's Guide).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16차 자료부터 20차 자료로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조사자료이다. 2017년 20차 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 수는 7,066가구이며 20차 조사에 총 응답 개인은 14,477명이다. 다른 패널데이터에 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등 본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KLIPS의 연도별 자료의 구성은 가구 자료, 개인 자료, 부가조사자료, 직업력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자료와 개인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가구 자료는 모든 조사연도별로 만들어지며 가구 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자료는 모든 조사연도별로 만들어지며, 유형 설문지, 취업자와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신규조사자용 설문지 등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 변화가 개인연금 유지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양적 연구 분석대상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과 그들의 노동소득 및 개인연금 유지상태’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우선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자료구성은 임금노동자로서의 시기의 한 시점과 자영업자로서의 시기의 한 시점, 즉 총 두 개의 시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임금→자영)에 덧붙여 비교집단(임금→임금)을 설정하였다. 비교집단은 두 시점 동안 임금노동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과 그들의 노동소득 및 개인연금 유지상태이다.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패널의 2012년부터 2017년 6개년 동안 이웃한 년도 에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사람들 중 t 시점에는 임금노동자였으나 $t+1$ 시점에 자영업자로 전환한 케이스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을 형성하였다. 둘째, 분석대상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7년 6개년 동안 이웃한 년도 에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사람들 중 t 시점과 $t+1$ 시점 모두 임금노동자이었던 케이스를 추출하여 비교집단을 형성하였다. 셋째, 각 집단의 년도 별 케이스를 덧붙여(append) 최종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2. 질적 연구 대상선정 및 절차

본 연구의 질적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금노동직에서 퇴직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임금노동 시절 개인연금에 가입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 직장에서 적게는 10년에서 최고 20년 근무 경력을 소지한 분으로서 자의 혹은 비자의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였다.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여자의 자발적 의지로 스스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 가운데 의사소통

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연구 참여 대상자를 소개받아 전화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소개받고 또 그 지인으로부터 다른 지인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정확한 크기에 대한 것은 미리 결정할 수가 없다(Morse, 2001). 이런 이유로 더 이상의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포화의 신호인 중복, 반복(신수진, 2006)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표본추출을 시행하였다.

조사 당시 전국적인 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 면담은 하지 못하고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와의 전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만 실시하였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관계로 참여 대상자를 소개받고, 대상자로부터 다른 지인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목적을 생각하면서 전화면담 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본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반 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질문의 순서는 참여자의 상황과 태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하였으며,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참여자 전화면담을 시행하였다.

전화 심층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하여 참여자와의 전화면담 동안 참여자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인상 깊은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였다. 전화면담 약속은 미리 참여자와의 전화통화로 면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핸드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였다. 녹음 내용은 가능한 당일 혹은 적어도 1~2일 이내에 참여자 표현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사하였다.

전화면담 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과 불충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전화면담 횟수는 1~2회 정도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은 지속해서 비교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하

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참여자에게 나타난 개념의 내용이 다음 참여자에게도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다음 면담을 위한 질문 사항은 수시로 메모하였다. 핸드폰 녹음은 수시로 들으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한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질문 1: 예정된 퇴직이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퇴직이신가요?
- 질문 2: 임금노동 퇴직 후 자영업 전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질문 3: 자영업으로 전환 후 경제적 어려움(소득의 감소)은 없으신지요?
- 질문 4: 현재 노후준비를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연금,보험 등)
- 질문 5: 자영업으로 전환 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 질문 6: 개인연금을 (유지 / 해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7: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 8: 개인연금 수익률과 세제 혜택 정보 및 서비스에 만족하나요?
- 질문 9: 인생의 전반적인 경제계획을 세우는 편인가요? (결혼, 육아, 노후)
- 질문 10: 퇴직 후 자영업을 하시면서 생활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 혹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질문 11: 귀하에게 자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3. 질적 연구의 윤리적 고찰

윤리적 고찰은 모든 연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 고찰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삶과 그들의 내면을 연구자가 인터뷰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접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김소연, 2018),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질적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진행되는 인터뷰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의 질적 연구에 사용됨을 알리고, 주제 및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때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알림으로써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주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전화 심층 인터뷰였음으로 따로 면담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편의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제 3 절 주요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양적 분석을 위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개인연금 유지율’이다. ‘개인연금 유지율’은 연금 미가입(0)과 연금가입(1)의 두 가지 값 중 하나를 가진다. 노동패널설문에서 개인연금 가입 여부는 조사연도 직전 한 해 동안 개인연금 존재 여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금유지율을 산출하기 위해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각 케이스별 t 시점에 개인연금을 소유했던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t+1$ 시점에도 동일하게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자영업 전환에 의한 노동소득

의 변화량' 이다. 노동소득변화량은 연간 가구 총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각 케이스별 $t+1$ 시점의 노동소득에서 t 시점의 노동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대신 가구 단위의 소득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개인연금 가입상태는 개인의 소득보다는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진, 2009). 이때, 자영업 이행이란 t 시점에서 임금노동자였다가 $t+1$ 시점에 자영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영업 비 이행이란 t 시점 및 $t+1$ 시점 둘 모두에서 고용형태가 임금노동자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임금노동자는 노동패널 설문 상 종사상의 지위를 이용 하였으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자영업자 여부도 노동패널설문 상 종사상의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자영업자/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1」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 시 소득변화량이 개인연금 가입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며 독립변수는 자영업 전환으로 인한 소득변화량이다. 이때 고려할 점은 t 시점에서는 소득수준이 다름에도 노동소득변화량이 비슷할 수가 있다. 따라서 t 시점의 노동소득을 통제한다. 이를 통해 노동소득변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상대적 소득변화량의 차이를 고찰한다. 연도 간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도효과'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선행연구에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모형에 삽입한다. 이것에 속하는 변수로 본 연구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석대상이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자영업자 중 t 시점 개인연금 가입자이므로, 상기한 인적특성 이외에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추가한다. 이상 모형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위에서 설명한 주요 통제변수 외, 모형별 모든 통제변수를 아래 [표 1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3] 연구모형별 변수

| 연구모형 | | |
|------------|---|--|
| 종속변수 | t+1시점 개인연금 가입여부 (0:미가입, 1:가입) | |
| 독립변수 | 자영업 전환 여부에 따른 노동소득 변화량 (t+1노동소득 - t노동소득) | |
| 통제변수 | | |
| 연령집단 | 45~54, 55~64, 65+ | |
| 혼인상태 | 0: 미혼, 1:기혼, 2: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 |
| 교육수준 | 0: 고졸이하, 1:대졸이하, 2:대학원졸이하 | |
| 배우자 유무 | 무=0, 유=1 | |
| 자녀유무 | 무=0, 유=1 | |
| 공적연금 가입여부 | 미가입=0, 가입=1 | |
| 민영건강보험가입여부 | 미가입=0, 가입=1 | |
| 가구총소득 | 가구 총소득액(연속변수), 로그처리 | |
| 가구총지출 | 가구 총지출액(연속변수), 로그처리 | |
| 부동산 소유여부 | 미보유=0, 보유=1 | |
| 노후필요최소생활비 | 노후필요최소생활비(연속변수), 로그처리 (노후생활에 대해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주관적 응답이다(국 민연금연구원, 2010)). | |
| 업종 | | 각주 참고 ¹⁾ |
| 연도효과 | 각 연도(0:2005년, ~ 6: 2017년) | |
| t시점 노동소득 | t시점 노동소득 | t시점 노동소득 |
| 자영업자 지위 | | 자영업자 지위 0: 자영자 1: 고용주(1~4인) 2: 고용주(5인 이상)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1) 0: 1차산업, 1:제조, 2:건설,전기,가스,수도, 3:도,소매, 4:숙박,음식 등

제 4 절 분석방법

1. 노동형태의 전환으로 인한 소득변화에 따른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 분석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는 ‘다중 회귀분석’과 ‘프로빗 회귀분석’을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첫째, 다중 회귀분석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연속하는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회귀식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다중 회귀식은 아래 (1)과 같다. 이 식은 오차항, 절편,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포함하고 있다.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최소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로 추정할 수 있다. 최소제곱법은 오차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1)

다중선형 회귀모형

$$Y_i = \alpha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p x_{pi} + \epsilon_i$$

Y_i : i 번째 관측값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

x_{1i} : i 번째 관측값에 대한 첫 번째 독립 변수의 값

x_{pi} : i 번째 관측값에 대한 p 번째 독립변수의 값

ϵ_i : i 번째 관측값 Y_i 에 대한 오차항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단순선형 회귀분석과 비교해 더 정확한 결과산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다중 회귀분석의 해석은 독립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회귀계수만큼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우수영, 2015.). 본 연구의 목적인 노동형태 변화로 인한 소득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 유지율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형태 변화, 즉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을 했을 시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분석에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이 1단위 변화할 때 소득변화량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프로빗 회귀분석(probit regression)은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확률이 0 혹은 1의 값을 갖는 경우 나타나는 비 선형관계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프로빗 모형의 주된 목적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에 나타나는 범위와 형태의 이질성을 비관측 변수(latent variable)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다. 이때, 선형모형 이외에 비선형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최소제곱법 대신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먼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도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가능성을 의미하며, 우도함수란, 결합 확률 밀도함수가 모수에 대한 함수일 때를 가리킨다. 이런 우도함수를 극대화하는 모수의 값을 추정치로 하는 방법이 ‘최우추정법’이다.

(2)

「우도함수」

표본 $X = (X_1, \dots, X_n)$ 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f(x|\theta)$ 이며 여기서 θ 는 모수라고 가정 했을 때, $X = x$ 는 관측된 표본점이다.

그렇다면 θ 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1) L(\theta | x) = f(x | \theta)$$

「최우추정법」

최대우도 추정의 목적은 모수 공간에서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모형 모수의 값을 찾는 것이다.

$$(2-2) \text{ maximize } L(x ; \theta)$$

이항 프로빗 모델은 아래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 연속 잠재 변수 Y^* 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만 관측된 종속변수 Y 가 1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Washington et al., 2011). 또한, (3-2)에 기술된 것처럼 Y 는 본 연구에서 개인연금 가입을 선택하는 것을 나타내며, X 는 설명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이때, β 는 잠재 변수 Y^* 에 대한 추정 가능한 모수의 벡터다. ϵ 는 오차항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3)

「프로빗 회귀모형」

$$(3-1) Y = \begin{cases} 1, & \text{IF } Y^*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3-2) Y^* = X\beta + \epsilon, \text{ WITH } \epsilon \sim N(0,1)$$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인 개인연금 가입 여부를 고찰하는 연구모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프로빗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개인연금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방법론: 근거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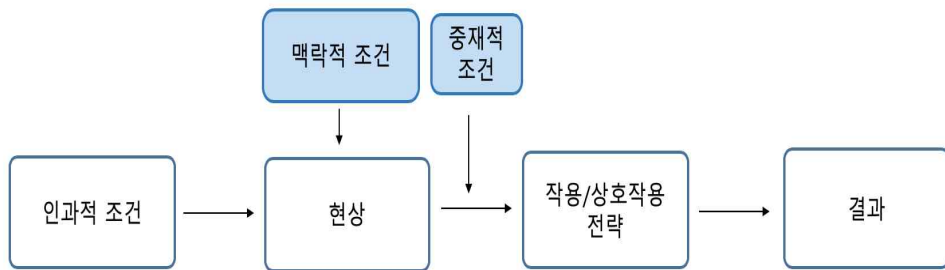
본 연구의 질적 분석에서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 임금 노동 은퇴자의 은퇴 후 자영업자로의 전환적응 과정과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특정 사건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방법으로써(김진숙 외, 2012), 본 연구의 주제인 중·고령 여성들에게 개인연금의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후,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단계 코딩방법은 독립적인 단계가 아니라 순차적이고, 누적적이며, 상호 작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김영천, 2013).

먼저, 개방 코딩(open coding)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초기코딩 단계로써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특정 개념들을 추려내고, 그 개념들이 가진 의미와 속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주들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분석은 범주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류하는 비교분석과 범주의 속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이론적 비교가 있다.

축 코딩(axial coding)은 개방 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을 중심현상을 나타내는 범주를 중심으로 연결해 구조와 과정을 하나의 도식(diagram)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이동성 외, 2012). 즉, 범주들과 하위범주들을 연결해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그림 5] 패러다임 모형에서 보어지 듯 인과적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축 코딩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슨 결과에 대한 답을 얻고 이를 통해 하나의

범주의 속성을 구체화하며(Strauss & Corbin, 1998), 이후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조건들과 그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박승민, 2005).

[그림 5] 패러다임 모형



자료) Strauss & Corbin (1990).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은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만들어진 범주나 연구자에 의해 생성된 범주를 통해 핵심범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써, Strauss(1987)에 의하면 이렇게 생성된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와 개념적으로 연관되며, 자료에서 쉽게 발견되어야 하고,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코딩에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중심문제에 대해 서술적으로 적는 story line, 이미 만들어진 범주들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 도표를 통해 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메모를 분석하여 범주들을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서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는 분석대상(임금→자영)과 비교집단(임금→임금)의 시점별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연금가입항목에 대해 임금에서 자영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개인연금가입은 62.84%에서 59.90%로 감소하였고, 미가입은 37.16%에서 40.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임금 유지집단)은 가입이 소폭 증가하였고(68.84% → 70.85%) 미가입은 감소하였다(31.16% → 29.15%). 둘째, 분석대상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직종의 측면에서 임금에서 자영으로 전환한 경우는 사무직은 2.70%에서 2.03%로, 판매, 서비스직은 46.62%에서 45.69%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관리 전문직, 숙련기능직, 단순노무직은 소폭이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분석대상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업종의 측면에서 임금에서 자영으로 전환한 경우는 서비스업과 2차 산업이 소폭 증가하였고, 1차 산업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4] 분석대상과 비교집단의 시점별 일반적 특성

| 변수 | | 분석대상(임금→자영) | | | | 비교집단(임금→임금) | | | |
|----------|------------|-------------|-------|-----|-------|-------------|-------|------|-------|
| | | t | | t+1 | | t | | t+1 | |
| | | n | % | n | % | n | % | n | % |
| 연령 집단 | 45-54 세 | 45 | 30.41 | 55 | 27.92 | 1408 | 60.69 | 1509 | 59.43 |
| | 55-64 세 | 50 | 33.78 | 67 | 34.01 | 633 | 27.28 | 707 | 27.85 |
| | 65+ | 53 | 35.81 | 75 | 38.07 | 279 | 12.03 | 323 | 12.72 |
| 혼인 | 미혼 | 2 | 1.35 | 3 | 1.52 | 35 | 1.51 | 40 | 1.58 |

| | | | | | | | | | |
|---------------|------------|------|-------|------|-------|-------|-------|-------|-------|
| 상태 | 기혼 | 86 | 58.11 | 114 | 57.87 | 1719 | 74.09 | 1893 | 74.56 |
| | 기타 | 60 | 40.54 | 80 | 40.61 | 566 | 24.40 | 606 | 23.87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134 | 90.54 | 178 | 90.36 | 1853 | 79.87 | 1984 | 78.14 |
| | 대졸 이하 | 11 | 7.43 | 15 | 7.61 | 376 | 16.21 | 453 | 17.84 |
| | 대학원 이상 | 3 | 2.03 | 4 | 2.03 | 91 | 3.92 | 102 | 4.02 |
| 업종 | 1차 산업 | 60 | 40.54 | 79 | 40.10 | 112 | 4.83 | 117 | 4.61 |
| | 2차 산업 | 71 | 47.97 | 95 | 48.22 | 1236 | 53.28 | 1340 | 52.78 |
| | 서비스 업 | 17 | 11.49 | 23 | 11.68 | 972 | 41.90 | 1082 | 42.62 |
| 직종 | 관리 전문직 | 8 | 5.41 | 12 | 6.09 | 344 | 14.82 | 408 | 15.07 |
| | 사무직 | 4 | 2.70 | 4 | 2.03 | 166 | 7.16 | 188 | 7.40 |
| | 판매서 비스직 | 69 | 46.62 | 90 | 45.69 | 807 | 34.78 | 877 | 34.54 |
| | 숙련 기능직 | 57 | 38.51 | 77 | 39.09 | 236 | 10.17 | 254 | 10.00 |
| | 단순 노무직 | 10 | 6.76 | 14 | 7.11 | 767 | 33.06 | 812 | 31.98 |
| 종사 상지 위 | 상용직 | - | - | - | - | 1386 | 59.74 | 1544 | 60.81 |
| | 임시직 | - | - | - | - | 609 | 26.25 | 665 | 26.19 |
| | 일용직 | - | - | - | - | 325 | 14.01 | 330 | 13.00 |
| | 고용/ 자영자 | 114 | 77.03 | 151 | 76.65 | - | - | - | - |
| | 무급가 족종사 | 34 | 22.97 | 46 | 23.35 | - | - | - | - |
| 소득 수준 | | 3698 | | 3737 | | 4494. | | 4733. | |
| | | .12 | | .18 | | 31 | | 33 | |
| 개인 연금 | 미가입 | 93 | 62.84 | 118 | 59.90 | 1597 | 68.84 | 1799 | 70.85 |
| 가입 여부 | 가입 | 55 | 37.16 | 79 | 40.10 | 723 | 31.16 | 740 | 29.15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제 2 절 실증분석

양적 분석: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

본 연구는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개인연금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노동소득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분석 모형으로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29.86$, $p<.001$), 모형의 설명력(R-square)은 38.7%이었다.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비 이행(임금노동을 유지한 경우)을 기준으로 이행(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일 때 소득변화량이 약 853만 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노동을 유지한 사람들이 $t+1$ 시점이 되어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하였을 때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평균 약 15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소득증가가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낮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45~54세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이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 감소패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비교하면 대학교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대졸 이하의 경우 이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도효과는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시간이 경과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환을 한 사람이든, 전환하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t 시점에서 t+1 시점으로 진행하는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변화량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5]는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노동소득 변화를 실증 분석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이 노동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Linear regression (다중회귀분석)

| | Coef. | St.Err. | t-value | p-value | [95% Conf | Interval] | Sig |
|-------------|----------|---------|---------|---------|--------------|-----------|-----|
| 이행여부(비이행) | 0.000 | . | . | . | . | . | |
| 이행 | -853.561 | 10.997 | -77.62 | 0.000 | -875.117 | -832.006 | *** |
| 연령집단(45-54) | 0.000 | . | . | . | . | . | |
| 55-64 | -23.632 | 4.558 | -5.18 | 0.000 | -32.567 | -14.697 | *** |
| 65+ | -50.757 | 5.963 | -8.51 | 0.000 | -62.446 | -39.068 | *** |
| 학력(고졸이하) | 0.000 | . | . | . | . | . | |
| 대졸이하 | 17.066 | 5.427 | 3.15 | 0.002 | 6.428 | 27.704 | *** |
| 대학원졸이하 | 14.682 | 10.152 | 1.45 | 0.148 | -5.219 | 34.582 | |
| 연도효과(2013) | 0.000 | . | . | . | . | . | |
| 2014 | -17.537 | 6.617 | -2.65 | 0.008 | -30.508 | -4.566 | *** |
| 2015 | -33.679 | 6.482 | -5.20 | 0.000 | -46.386 | -20.972 | *** |
| 2016 | -37.330 | 6.357 | -5.87 | 0.000 | -49.791 | -24.869 | *** |
| 2017 | -42.379 | 6.236 | -6.80 | 0.000 | -54.602 | -30.155 | *** |
| 상수 | 4626.094 | 5.192 | 891.04 | 0.000 | 4615.917 | 4636.271 | *** |

*** $p < 0.01$, ** $p < 0.05$, * $p < 0.1$

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표 16]은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으로 전환을 한 분석대상의 빈곤율의 경우 t 시점의 28.5%에서 t+1 시점 35.9%로 7.4%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비교집단의 빈곤율의 경우 t 시점 30.2%에서 t+1 시점 35.0%로 4.8% 포인트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빈곤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두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환에 따른 빈곤율 변화(단위: %)

| | t | t+1 | 증감 |
|--------------------|------|------|------|
| 분석대상 (임금 -> 자영) | 28.5 | 35.9 | +7.4 |
| 비교집단 (임금 -> 임금) | 30.2 | 35.0 | +4.8 |
| 전체 | 29.3 | 35.4 | +6.1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위의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분석대상이 비교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즉,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은 감소하고 빈곤율은 증가한 것이다. 특이점은 분석에 사용된 연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빈곤율이 t 시점과 비교하면 t+1 시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조사 당시 사회, 경제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연금유지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개

인연금유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rob > chi2 = 0.0000), 모형의 설명력(pseudo R-square)은 11.7%이었다.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비 이행(임금노동을 유지한 경우)을 기준으로 이행(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일 때 가입유지확률은 -0.1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유지확률의 감소는 유의수준 p=0.124로 나타나, 분석대상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상태가 악화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의 경우 45~54세에 비해 55~64세, 65세 이상일 때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비교하면 대학원 졸업 이하일 때 1.141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연도효과는 기준 시점과 비교하면 시간이 경과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개인연금가입상태에 크게 유의한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Probit regression (프로빗 분석)

| | Coef. | St.Err. | t-value | p-value | [95% Conf | Interval] | Sig |
|-------------|--------|---------|---------|---------|--------------|-----------|-----|
| 이행여부(비이행) | 0.000 | . | . | . | . | . | . |
| 이행 | -0.115 | 0.075 | -1.54 | 0.124 | -0.261 | 0.031 | . |
| 연령집단(45-54) | 0.000 | . | . | . | . | . | . |
| 55-64 | -0.209 | 0.035 | -5.90 | 0.000 | -0.278 | -0.139 | *** |
| 65+ | -1.224 | 0.041 | -30.07 | 0.000 | -1.304 | -1.144 | *** |
| 학력(고졸이하) |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대졸이하 | 0.023 | 0.043 | 0.54 | 0.590 | -0.061 | 0.108 | |
| 대학원졸이하 | 1.141 | 0.164 | 6.97 | 0.000 | 0.820 | 1.462 | *** |
| 연도효과(2013) | 0.000 | . | . | . | . | . | |
| 2014 | 0.113 | 0.049 | 2.32 | 0.021 | 0.017 | 0.208 | ** |
| 2015 | 0.204 | 0.048 | 4.22 | 0.000 | 0.109 | 0.298 | *** |
| 2016 | 0.311 | 0.048 | 6.48 | 0.000 | 0.217 | 0.406 | *** |
| 2017 | 0.341 | 0.047 | 7.21 | 0.000 | 0.248 | 0.433 | *** |
| 상수 | 0.907 | 0.038 | 23.58 | 0.000 | 0.832 | 0.983 | *** |

*** $p<0.01$, ** $p<0.05$, * $p<0.1$

위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아래 [표 18]은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 유지상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의 개인연금 유지율의 경우 t 시점 31.1%에서 t+1 시점 29.7%로 1.4% 감소한 것에 비해 비교집단의 개인연금 유지율의 경우 t 시점 37.1%에서 t+1 시점 40.1%로 3.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금노동자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개인연금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18]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개인연금유지상태 변화(단위: %)

| | t | t+1 | 증감 |
|--------------------|------|------|------|
| 분석대상 (임금 -> 자영) | 31.1 | 29.7 | -1.4 |
| 비교집단 (임금 -> 임금) | 37.1 | 40.1 | +3.0 |
| 전체 | 34.1 | 34.9 | +0.8 |

자료) 노동패널 20차 분석.

마지막으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득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변화가 개인연금유지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분석모형으로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개인연금유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rob > chi2 = 0.0000).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여주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이 작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19] 중·고령 여성의 자영업자의 소득변화가 개인연금 가입상태에 미치는 영향
Probit regression (프로빗 분석)

| 개인연금가입 | Coef. | St.Err. | t-value | p-value | [95% Conf | Interval] | Sig |
|--------------|--------|---------|---------|---------|--------------|-----------|-----|
| 소득변화 | 0.000 | 0.000 | 2.65 | 0.008 | 0.000 | 0.000 | *** |
| 연령(45-54) | 0.000 | . | . | . | . | . | |
| 55-64 | -0.123 | 0.080 | -1.55 | 0.122 | -0.280 | 0.033 | |
| 65+ | -1.192 | 0.090 | -13.27 | 0.000 | -1.368 | -1.016 | *** |
| 혼인상태 (미혼) | 0.000 | . | . | . | . | . | |
| 기혼 | 0.993 | 0.375 | 2.65 | 0.008 | 0.259 | 1.727 | *** |
| 기타 | 0.651 | 0.378 | 1.72 | 0.085 | -0.091 | 1.392 | * |
| 학력 (고졸이하) | 0.000 | . | . | . | . | . | |
| 대졸이하 | 0.085 | 0.118 | 0.72 | 0.470 | -0.146 | 0.317 | |
| 대학원졸이하 | -0.056 | 0.398 | -0.14 | 0.888 | -0.837 | 0.725 | |
| 자녀유무 (없음) | 0.000 | . | . | . | . | . | |
| 있음 | -0.466 | 0.085 | -5.50 | 0.000 | -0.632 | -0.300 | *** |

| | | | | | | | |
|----------------|--------|-------|-------|-------|--------|--------|-----|
| 국민연금가입 (무) | 0.000 | . | . | . | . | . | |
| 유 | 0.516 | 0.375 | 1.38 | 0.168 | -0.218 | 1.251 | |
| 자산 | 0.000 | 0.000 | 1.09 | 0.276 | 0.000 | 0.000 | |
| 부채 | 0.000 | 0.000 | 3.29 | 0.001 | 0.000 | 0.000 | *** |
| 부동산유무 (무) | 0.000 | . | . | . | . | . | |
| 유 | -0.244 | 0.068 | -3.61 | 0.000 | -0.377 | -0.112 | *** |
| 업종(1차산업) | 0.000 | . | . | . | . | . | |
| 2차산업 | -0.068 | 0.396 | -0.17 | 0.863 | -0.844 | 0.708 | |
| 서비스업 | -0.210 | 0.448 | -0.47 | 0.639 | -1.089 | 0.668 | |
| 연도효과 (2013) | 0.000 | . | . | . | . | . | |
| 2014 | -0.072 | 0.055 | -1.31 | 0.191 | -0.179 | 0.036 | |
| 2015 | -0.107 | 0.056 | -1.92 | 0.055 | -0.217 | 0.003 | * |
| 2016 | -0.279 | 0.056 | -4.96 | 0.000 | -0.389 | -0.169 | *** |
| 2017 | -0.384 | 0.064 | -5.98 | 0.000 | -0.509 | -0.258 | *** |
| 상수 | 0.241 | 0.391 | 0.62 | 0.537 | -0.525 | 1.007 | |
| Insig2u | 0.744 | 0.062 | .b | .b | 0.623 | 0.865 | |

| | | | |
|--------------------|-------|--------------------|-----------|
| Mean dependent var | 0.444 | SD dependent var | 0.497 |
| Number of obs | 10992 | Chi-square | 609.063 |
| Prob > chi2 | 0.000 | Akaike crit. (AIC) | 11150.820 |

*** $p < 0.01$, ** $p < 0.05$, * $p < 0.1$

특히 45세~54세에 비해 65세 이상인 경우,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학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자녀가 있을 때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금융 자산과 부채 둘 다 증가할수록 개인연금가입의 가능성이 커지는 패턴을 보였으나 부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부동산 소유 여부의 경우 부동산이 없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연금 가입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업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도효과는 기준 시점과 비교하면 시간이 경과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양적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가 이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내용을 종합하자면,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 임금노동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소득변화량이 약 853만 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노동을 유지한 사람들이 t+1 시점이 되어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하였을 때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평균 약 150만 원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빈곤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게 된다.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빈곤율은 곧장 그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동안 모아두었던 개인 연금액으로 자영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해지율은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연금 해지율보다 높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연금 유지확률이 -0.1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연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에서 더욱 필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 임금노동자 시절,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던 개인연금을 자영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지하여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을 위태롭게 만들며, 어떠한 정책이 유지율을 높일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양적 분석의 후속 연구로써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질적 분석: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중·고령 임금노동자가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정희, 2010).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금노동자였으나 현재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중·고령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명에 대한 전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은 무작위 표집이 아닌 이론적으로 적합한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으로 조사하여(Strauss & Corbin, 1998) 진행하였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연금 가입 여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0] 질적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참여자 | 성별 | 연령 | 지역 | 과거 임금직 | 현재 자영업 | 가족 상황 | 개인연금 유지 여부 |
|-------|----|----|----|---------|------------|------------|-----------------|
| 참여자 1 | 여 | 45 | 서울 | 학원 강사 | 개인교습소 운영 | 기혼, 2명의 자녀 | 배우자의 명의로 본인이 지급 |
| 참여자 2 | 여 | 52 | 인천 | 가발회사 직원 | 가발회사 운영 | 기혼, 2명의 자녀 | 유지 |
| 참여자 3 | 여 | 45 | 인천 | 건설회사 회계 | 네트워크마케팅 | 기혼, 2명의 자녀 | 해지 |
| 참여자 4 | 여 | 48 | 인천 | 주물단지 경리 | 반찬가게 + 고깃집 | 기혼, 2명의 자녀 | 유지 |

1.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방코딩

본 연구의 개방코딩(open coding)에서는 근거 방법을 통해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경험하는 개인연금 유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주제(theme)를 중심으로 범주들을 지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줄 단위로 분석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2개의 개념이 도출되고 36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이를 한층 더 추상화시켜 12개의 범주를 도출하여 개방코딩을 완성하였다.

<개방코딩>

[표 21]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범주 목록

| 개념 | 하위범주 | 범주 |
|--|-------------------|-----------------------|
| 계획에 맞게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자발적 은퇴 | 임금노동으로부터 의 탈피 | 비임금 노동자로의 전환 배경 |
| 결혼 이후, 아이를 갖게 되면서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둠 | | |
| 결혼 이후,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닌 가족으로 변함 | 결혼과 출산 | |
| 출산과 육아를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비용을 할애 | | |
| 아이들 학원 비용, 생활비, 보험비 등의 지출로 맞벌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저축 | 경제적 어려움 | |
| 결혼, 출산, 양육, 자녀 교육, 생활에 대한 지출 증가 | | |
|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직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았음 | 아이 양육 |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 |
|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미안함으로 임금노동직으로 복귀 망설임 | | |
| 출산과 육아로 인한 몇 년간의 경력 공백으로 임금노동직으로 복귀가 망설여짐 | 경력단절 | |
| 남들보다 뒤쳐졌다는 심리적 압박감 | | |
|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나만의 직업에 대한 열망 | 자영업이 주는 희망적 상황 | |
| 시간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롭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욕구 | | |
| 지금 당장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 생계형 | 인생의 또 다른 |

| | | |
|--|----------------------------|----------------------|
| 자영업 | | |
| 생활비, 교육비, 보험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 | | |
|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시간에 더 자유로운 자영업 |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짐 | 통로로서의 자영업 |
| 출·퇴근 및 불필요한 사회적 관계에 사용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 |
|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벌어 노후준비로 귀촌을 계획함 | 편안한 노후에 대한 희망 | |
| 외 벌이 보다는 맛벌이가 노후에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 | | |
|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비해 이익 감소 | | |
| 임금직과 자영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단순 일반 적인 경우 소득 감소 | 일관성있는 소득 획득 가능성 감소 | |
|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이 없는 경우 소득증가 | | |
| 기술직인 경우, 임금직과 같은 직종으로 자영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소득의 증가 | |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 |
| 사회적 시기, 유행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짐 | | |
| 물가 상승, 정책에 따라 자영업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달라짐 | 소득수준의 불안정성 | |
|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듦 | | |
| 생각처럼 쉽게 돈을 벌기 힘든 자영업의 현실로 인한 불안함.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 |
| 자영업을 위한 공간에 대한 비용,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법률적인 비용 | 경제적 부담감 | |
| 자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고정 지출은 있지만, 고정 수입이 없음에 따라 예산의 가늠이 어려움 | | |
|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 | |
| 가족을 위해 사용하였던 시간 등을 자영업에 할애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가족과의 유대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 | 심리적 부담감 |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통 |
|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에 울고 웃는 자영업자들 | | |
| Covid 19 바이러스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 |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 |
| 임금노동 때 보다 '돈돈'하는 경우가 많아짐 | | |
|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소득을 장담할 수 없음 | 경제적 변화 | 자영업으로 달라진 삶 |

| | | |
|--|-----------------------|-----------------|
| 임금노동과 달리 소속감의 결여, 직장동료와의 교류에 대한 갈망 증가 | 심리적 변화 | |
| 언제든 자영업이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림 | | |
| 임금노동과 달리 정시 퇴근이 없음 | | |
|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종이다 보니, 임금노동과 다르게 어딘가(아이들 학교 등)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음 | 시간적 변화 | |
| 생계를 위한 임금직의 차선택 | 생계의 일환 | |
| 아이를 양육하면서 할 수 있는 생계수단 | | |
|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수 있는 기회 | 또 다른 기회 | 자영업의 만족감 |
|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다는 자긍감과 엄마로서, 아내로서 뿐 아니라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 | | |
| 자영업을 함으로써 큰 돈이 가끔 들어옴; 그때마다 노후를 위해 시골에 땅을 조금씩 사두고 있음 | 노후 안정 | |
| 자영업을 함으로써 나의 미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음 | | |
|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개인연금 비용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지금 너무 부담스러움 | 비용부담의 어려움 | 버거운 개인연금 |
| 가입 당시 이야기했던 수익률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음. 즉, 비용대비 편익이 보장되지 않음 | | |
|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생각과는 다른 개인연금 | |
| 가입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이후, 딱히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재 | | |
| 장사가 안되는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듦 | 개인연금 유지에 대한 갈등 | |
| 지금 당장 현재를 살기에도 빠듯함 | | |
|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생활비는 내가 젊을 때 벌어서 쓰자 라는 생각을 함 |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과 같은 존재 |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 |
| 지금은 개인연금에 나가는 돈으로 조금 빠듯하게 살더라도, 이로 인해 내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 | | |
| 현재는 돈이 벌릴지 몰라도 더 나이가 들어서는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불안정한 자영업에 대한 | |

| | | |
|---|---------------------|-----------------------|
| 시기에 따라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 대비 수단 | |
| 연말정산 시 연금에 대한 세제 이율이 있음 | 세제 혜택을 위한 유지 | |
| 보험과 같은 것;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주어짐 | 국민연금 | 개인연금과 타 연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 |
| 나라가 나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져감(강제성) | | |
| 저축의 의미; 연건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 | |
| 내가 노후에 얼마나 받을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비용을 책정한 후 자의에 의해 투자형식으로 들 수 있음(자발적) | | |
| 국민연금의 강제성, 불확실성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다른 점 인식 | |
| 개인연금의 계획성 | | |
| 원금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지 | 세제 혜택 | 내가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이유 |
| 연금 상담사에게서 세제 혜택에 관한 정보 얻음 | 정보 & 교육 | |
| 보험사 FC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 설명하심 | | |
| 정책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국민연금수령액과 수령 연령으로 인한 불신, 못 탈 수도 있다는 불안감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 |
| 국민연금은 제도로써 존재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확실함 | | |
| 배우자가 더 꼼꼼한 편이라, 배우자가 경제계획을 세우고, 본인은 이에 따르는 편임 | 배우자와의 협업 | 내 인생의 경제 계획 |
| 부부 모두 따로 경제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함 | | |
| 결혼 후 아이를 언제쯤 갖을지, 아이들의 교육비, 등의 지출의 계획을 세움 | 계획에 따른 경제활동 | |
| 자영업은 언제 시작하고 몇 살까지 얼마의 돈을 모을지 등에 대한 나이대별 경제 목표를 세움 | | |
| 노후를 위해 만원이 있을 때 이를 다 쓰기보다는 그 만원으로 다시 오천원을 벌 방법을 모색함 | 나의 노후 | |
|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을 통한 경제계획에 노력 | | |

1) 비 임금노동자로의 전환 배경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임금노동자에서 비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은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탈피”, “결혼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의 하위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계획에 맞게 기술을 배우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함으로써 비 임금노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이는 행운이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성 임금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퇴직’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비용을 가족에게 할애 하며 점차 삶의 중심이 자신에서 가족으로 옮기게 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자녀 교육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한 지출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만큼 경제적인 활동에서 뒤처지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결혼 전까지 10년 정도 학원에서 월급을 받는 학원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아이를 갖고 출산을 위해 출산 6개월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임금노동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눈치도 보이고,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참여자1)

사실 한 달에 300~350만 원 벌어서는... 요즘 물가에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보험비 등 나가고 나면 솔직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보험과 적금 붙고, 다른 한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받은 생활비 받은 저금을 해도 빠듯해요. 여자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죠 (인터뷰 참여자4)

2)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근무 일선에서 물러나 다시는 임금노동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 양육”, “경력단절”, “자영업이 주는 희망적 상황”의 하위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성들은 ‘아이를 봐줄 사람의 부재’인 상태에서 임금노동직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으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존재해도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함에 따른 미안함’으로 임금노동직으로의 복귀를 망설이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성들을 임금직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임금직 노동과 비교하면 ‘시간상으로 자유롭고’,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영업’이 주는 희망적 상황을 꿈꾸게 된다.

*퇴직 이후 자영업으로 전환했던 이유는 아이를 낳고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와의 거리도 멀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집에 두고 직장을 나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3)*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월급쟁이로 살다가 자영업을 한다면 가장 큰 이유 또는 목표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싶어서겠죠? 정확하게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예정은 아니었지만, 수년 기간 근무를 하고 기술을 배워서, 자영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했었죠. (인터뷰 참여자 2)

3) 인생의 또 다른 통로로서의 자영업

출산과 육아로 지속적인 임금노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된 여성들은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에 이들은 인생의 또 다른 통로인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생계형”,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편안한 노후에 대한 희망”의 하위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금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의 지출은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보험비 등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거나, 이후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벌고 노후준비로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다. 즉, 임금노동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중·고령 여성들이 자영업을 차선택으로 선택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자영업을 통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경우들도 존재했다.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일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면 충분히 제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그만큼 수입이 줄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자영업이란 아이를 키우기에는 가장 적합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

자영업을 통해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귀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참여자 2)

4)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공통으로 자영업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소득의 불안정성이다. 이들이 설명하는 소득의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일관성 있는 소득 획득 가능성 감소”, “소득수준의 불안정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의 하위범주로 나타난다.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시기, Covid 19와 같은 유행병, 물가 상승, 정책적 변화’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예산의 예측이 어렵다. 이 경우, 이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없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즉, 자영업 전환 후 예측할 수 없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불안감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깐, 월급으로 생활을 했을 때는 한 달마다 정해져 있는 소득이 있고, 한 달 예산에 대한 가늠이 가능했지만, 자영업으로 전환한 후 소득이 들쭉날쭉 이다보니 아무래도 한 달 예산에 대한 가늠이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

월급 생활을 할 때는 고정적이고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자영업으로 전환 후 때때마다 계절을 타거나, 시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조류독감과 같은 사건이 생길 때 마다 매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터뷰 참여자 4)

5)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충

자영업의 운영은 소득의 불안정성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을 괴롭히는 요소들로는 “경제적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의 하위범주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자영업을 위한 공간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수입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가 생길까 늘 노심초사한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며, 시간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자영업이 오히려 임금노동직보다 더 시간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유대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중·고령 여성자영업들은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중·고령 여성자영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자영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교습이기 때문에 학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학생을 확보한 후에는 가르칠 만한 공간이라던가, 그걸 위해서... 제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인 문제들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1)

퇴직 이후 아이를 키우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좀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영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더 없더군요. (인터뷰 참여자 4)

6) 자영업으로 달라진 삶

자영업에 따른 중·고령 여성들의 고충은 이들의 삶도 달라지게 하였다. 이는 크게 “경제적 변화”, “심리적 변화”, “시간적 변화”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변화는 임금노동 때 보다 ‘돈에 대해 집착’ 하는 정도가 높아졌고, 심리적으로는 임금노동과 달리 ‘소속감의 결여’, ‘직장동료와의 교류에 대한 갈망’ 등의 증가로 나타났다. 시간적 변화 역시 자영업의 경우 임금노동과 달리 ‘정시 퇴근이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는 직종이다 보니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되고 있었다. 즉, 자영업의 전환은 여성들이 임금직 노동에서는 당연히 되었던 많은 부분의 결여를 느끼게 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동료와의 유대감과 소속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소외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 아쉬운 점은 임금노동과 달리 소속되어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깐 소속감? 그리고 직장동료와의 교류? 그러니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종이다 보니 어딘가에 제출할 서류라든가 아이들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보낼 때 애로사항이 많아요. 해야 할 서류도 많고,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니깐 직장에 다니게 되면, 제가 주어진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정시에 퇴근하게 되고, 주어진 임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개인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깐 특히나 지금 코로나 같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스트레스가 있게 되죠. (인터뷰 참여자 1)

7) 자영업의 만족감

이러한 다양한 자영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여성들이 자영업을 이어가는 이유로는 자영업이 이들에게 “생계의 일환” 이자, “또 다른 기회” 를 제공하고, “노후 안정” 을 꿈꿀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중·고령 여성들에게는 자영업이 임금직의 차선택으로 아이들의 ‘양육과 함께할 수 있는 생계수단’ 이자,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 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의 영업 특성상 임금노동과 다르게 간혹 ‘큰돈이 들어오는 기회’ 가 있는데, 이러한 기회는 중·고령 여성들에게 노후를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즉, 중·고령 여성들은 자영업이 주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영업은 저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좋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로서도 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잘 돼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 꿈꾸고 있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3)

자영업을 하면서 아쉽거나 힘들었던 점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시간적인 여유나 내 삶에 대한 여유가 생길텐데, 이게 돈을 따르다 보니깐 하루를 더 안 쉬게 되고 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연금과 같은 제 노후에 더 넣게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4)

8) 버거운 개인연금

물론 이들이 자영업을 통한 삶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지금 당장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소비 이외의 부수적인 지출은 이들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개인연금의 유지비용도 이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의 유지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이 개인연금을 버거워하는 원인으로는 “비용부담의 어려움”, “생각과는 다른 개인연금”, “개인연금 유지에 대한 갈등”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개인연금 비용이 부담’이 되며, 가입 당시 제공했던 서비스 이후의 ‘추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하여 ‘비용대비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개인연금의 유지가 어려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령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되는 시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개인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연금을 해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
다. 제가 소득이 있었을 때는 미리 넣었던 것인데, 자영업으로 전
환 후 개인연금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3)*

*사실 제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 개인연금이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깐 세제 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세금에서 경비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빼주잖아요.
근데, 사업을 할 때 경비처리로 세금을 뺀 사람이 연금을 탈 때는
세금을 내야되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2)*

9)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는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그들이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들이 설명하는 개인연금유지에 의한 장점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과 같은 존재”, “불안정한 자영업에 대한 대비 수단”, “세제 혜택을 위한 유지”의 하위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을 ‘노후를 책임져줄 보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참여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개인연금을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이가 더 들어 체력적 또는 환경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위한 대비책’으로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답해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개인연금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연금을 들었던 특별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말마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연금에 대한 세제 이율이 높고, 그걸 들어야 이익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참여자 1)

개인연금을 처음에 들었던 이유는 저희 아이가 쌍둥이여서 나중에 제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내 생활비는 내가 젊을 때 벌어서 쓰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터뷰 참여자 4)

10) 개인연금과 타 연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유지하고 있음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다른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설명하는 국민연금은 나의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가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주어지는 ‘보험과 같은 것’이며, 개인연금은 내가 노후에 얼마나 받을지를 생각하고 ‘계획에 맞게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지며, 언젠가는 ‘원금을 보장’받고, 현재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의 의미’로 설명하였다. 즉,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다른 점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것이고요. 만약을 위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주어지니깐 정말 보험의 의미이고, 개인연금의 의미는 그냥 저축의 의미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금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깐, 다른 적금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저축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1)

개인연금은 제가 노후보장을 위해 얼마나 내가 노후에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비용을 책정을 한 후 연금을 들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의 비율에 맞춰 책정이 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존재하고 개인연금은 자의에 의해서 투자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3)

11) 내가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이유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에게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세제 혜택”, “정보 & 교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라는 하위범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정책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국민연금수령액과 수령 연령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로써 존재하지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에 수령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반면, ‘개인연금은 주체가 사적 기업 또는 은행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적 기업 또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세제 혜택 및 개인연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연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강제성이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4대 보험이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을 따랐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들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액수가 적고, 추후에 못 탈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서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면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은행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4)

개인연금 수익률, 세제 혜택 등의 정보, 교육,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회사에서도 한 번씩 업체에서 나와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고, 저희 거래처 은행들이 있어서 그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관리를 받는 편이 개인연금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4)

12) 내 인생의 경제계획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의 협업”, “계획에 따른 경제활동”, “나의 노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후 아이를 언제쯤 갖을지’부터 아이들의 ‘교육비 등의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자영업에 대해서도 ‘나이대별의 경제 목표’를 세워 몇 살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연금, 저축, 부동산 등을 통한 경제계획’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즉,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과 노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생의 전반적인 경제계획은 지나칠 정도로 늘 세우는 편입니다.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기술을 배워서 좀 더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귀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참여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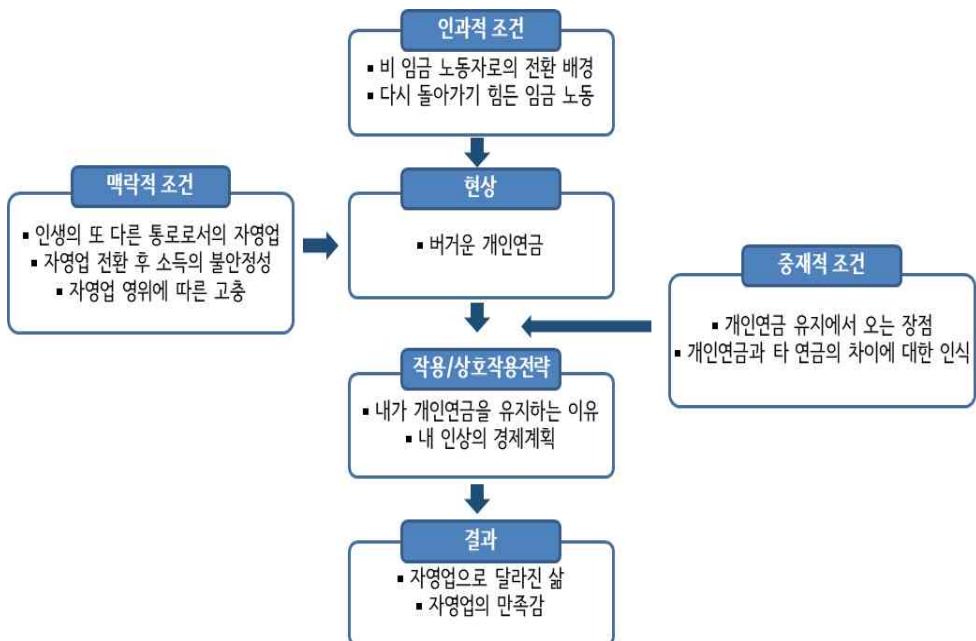
저의 경우는 경제계획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언제쯤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쌍둥이를 가졌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교육비가 별로 들지 않지만, 고학년이 되고 교육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학년일 때부터 아이들의 학비에 대한 저축을 따로 하고 있었고, 가게(자영업)도 언제까지 어떻게 몇 살까지만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4)

2.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경험 과정에 대한 축코딩-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의 축 코딩(axial coding)에서는 개방 코딩을 통해 나누어진 개념, 하위범주, 범주의 자료들을 패러다임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아래 [그림 6]과 같이 패러다임 모형으로 도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경험하는 개인연금 유지 여부’의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확인하고 현상을 보다 완벽하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위범주와 범주를 연결함으로써(Strauss & Corbin 1998) 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축코딩>

[그림 6] <축코딩>-패러다임 모형



참고) 최영준 (2015) 참고.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경험하는 개인연금 유지 여부’의 경험적 자료를 패러다임을 이용한 범주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비임금 노동자로의 전환에 따른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이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버거운 개인연금 유지’였다. 이러한 현상의 맥락적 조건은 ‘인생의 또 다른 통로로서의 자영업’,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충’이었고, 중재적 조건은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 ‘개인연금과 타 연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개인연금 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신의 개인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의 발견’, ‘향후 삶에 있어서 경제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는 ‘자영업으로 달라진 삶’과 ‘자영업 운영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도출되었다.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어떠한 현상의 발생 혹은 발전을 이끄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인과적 상황의 선행조건은 ‘왜’, ‘언제’, ‘어디에서’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자료를 조직화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김영천, 2015). 본 연구에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일 또는 사건으로 구성된 인과적 조건은 ‘비임금 노동자로의 전환에 따른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이었다. 중·고령 비임금 자영 여성들은 퇴직 이후 직장을 떠나 직장생활이 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영업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영위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범주’가 ‘현상’인 ‘버거운 개인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2) 현상(phenomenon)

현상(phenomenon)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현상은 본 연구 인터뷰 대상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반되는 언어, 행위, 사건 등의 중심현상을 의미한다(김영천, 2015). 본 연구에서 현상(phenomenon)은 ‘버거운 개인연금 유지’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현상이란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정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한다(김영천, 2015).

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현상(phenomen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 문제나 환경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다루며, 현상(phenomenon)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맥락적 조건은 ‘인생의 또 다른 통로로서의 자영업’,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충’으로 나타났다.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현상(phenomen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스템적 상황으로서 주어진 현상 혹은 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억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즉,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 ‘개인연금과 타 연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누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는 추상적, 개념적 방식으로 특정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문제, 쟁점, 사건에 대처하는 전략과 일상적이면서도 때로 습관적인 행위를 말한다. 작용/상호작용의 속성은 자연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목적 지향적 개념이다(김영천, 2015). 본 연구결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신의 개인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의 발견’, ‘향후 삶에 있어서 경제계획’으로 나타났다. 즉,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연금의 유지’라는 현상(phenomenon)을 다루고 조절하기 위해 선택되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다.

6) 결과(consequences)

결과는 실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잠재적일 수도 있으며, 현재 혹은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김영천, 2015). 본 연구에서 결과는 현상(phenomenon)인 ‘버거운 개인연금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영업으로 달라진 삶’과 ‘자영업 운영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도출되었다.

3.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범주를 만들기 위한 선택코딩

본 연구의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에서는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만들어진 범주를 통해 핵심범주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와 개념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이론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범주를 만들기 위한 선택 코딩’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택코딩>

- 1) 핵심범주: 자산관리 교육을 통한 개인연금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경제계획을 세워라.

연구에 참여한 중·고령 여성자영업자들은 그들의 20~30대 시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임금노동자에서 비 임금노동자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에서는 물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비 임금노동자로서의 여성들의 삶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의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생활하여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 및 자녀 양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40~50대의 중·고령의 나이가 되어서야 여성들은 일에 대한 갈증과 사회적인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가족을 위해 살았던지라 임금노동으로 돌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특히, 또다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과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여

성들을 임금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들은 비교적 시간상으로 자유로우며 열심히만 한다면 일한 만큼 내 것이 될 수 있는 자영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의 세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도 않았다. 특히, 자영업 유지를 위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이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감을 안겨주었다. 현재와 같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정부의 자영업 관련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역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소득의 불안정성은 심리적 불안감으로도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가 자신의 노후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개인연금을 해지하게 만들고 있다. 즉, 이들과 같은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연금유지에 강제성이 없고, 유지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재의 소득이 없는 개인연금은 가장 큰 경제적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들일수록 더욱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은 중·고령 여성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임금직 노동에서 물러나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한 사례(case)가 많으므로 자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연금의 해지가 그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개인연금 해지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에 자영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개인연금이 비록 지금 현재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연금 유지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유지 시, 연말정산에서 세

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안정한 자영업에 대한 대비 및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국가가 주체인 국민연금보다는 사적 기업이 주체인 개인연금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연금, 저축, 보험뿐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주기적으로 연금 상담사나 보험사들에게 상담 또는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친 경제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즉, 자영업 전환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개인연금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찾아서 자신들의 자영업에 응용하여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본인의 노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미래소득의 감소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자산관리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 정책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과 수령 연령이 반복적으로 달라짐으로써 나타난 불신과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졌을 시 책임을 지는 주체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는 책임의 주체가 사적 기업 또는 은행으로써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개인연금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형분석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전환 이후 개인연금을 해지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과 자영업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

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로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총 6가지의 항목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6가지 항목은 (1) 개인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도, (2)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3)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4)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도, (5)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 여부, (6) 인생 전반에 대한 경제계획 여부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는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높고, 낮음으로 표시하였다. 단, 아래 6가지 항목들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인터뷰를 기반으로 두 유형 간의 ‘상대적인 평가’로 진행하였다.

[표 22] 6가지 항목에 대한 개인연금 유지 vs. 해지 원인 비교

| | 개인연금 유지 | 개인연금 해지 |
|-------------------------|------------|------------|
| 개인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도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 높음 | 보통 |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 낮음 | 보통 |
|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도 | 높음 | 낮음 |
|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 여부 | 유 | 무 |
| 인생 전반에 대한 경제계획 여부 | 유 | 무 |

이를 정리하자면, 자영업으로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경우 개인연금을 해지한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1) 개인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도, (2)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4) 자산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3)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5)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고, 이에 따라 (6) 인생 전반에 대한 경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들의 고용시장에서의 위치와 이로 인한 그들의 불안정한 노후상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현실을 되짚어보았다. 먼저, 노동패널을 이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중·고령 여성들의 자영업 전환이 개인연금의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금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소득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임금직을 유지한 중·고령 여성들과 비교하여 소득변화량이 약 853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노동직을 유지한 여성들이 t 시점에서 $t+1$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이 1,000만 원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으로 전환한 여성들은 t 시점에서 $t+1$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이 150만 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프로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금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으로 전환한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임금직을 유지한 중·고령 여성들과 비교하여 개인연금 유지율이 -0.1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개인연금유지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로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금직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함

에 따른 소득의 변화가 중·고령 여성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 노동소득이 증가할수록, (2) 연령이 낮아질수록, (3) 금융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할수록, (4) 자녀가 없는 경우, (5) 부동산이 없는 경우 개인연금 유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력, 국민연금가입 여부, 부채, 업종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는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의 변화가 이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근거이론 기반의 질적 분석을 통해 중·고령 여성 임금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단계 역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방코딩’에서는 인터뷰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여, 중·고령 여성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고, 총 72개의 개념, 36개의 하위범주, 1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12개의 범주로는 (1) 비임금 노동자로의 전환 배경, (2)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 (3) 인생의 또 다른 통로로서의 자영업, (4)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 (5)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충, (6) 자영업으로 달라진 삶, (7) 자영업의 만족감, (8) 버거운 개인연금, (9)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 (10) 개인연금과 타 연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 (11) 내가 개인연금을 유지하는 이유, (12) 내 인생의 경제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나누어진 개념, 하위범주, 범주를 인과적 조건 → 현상 → 맥락적 조건 → 중재적 조건 → 작용/상호작용전략 → 결과 간의 관계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도식화함으로써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경험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과적인 조건」인 ‘비 임금노동자로의 전환 배경’과 ‘다시 돌아가기 힘든 임금노동’이 중·고령 여성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현상」인 ‘버거운 개인연금’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연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맥락적 조건」인 ‘자영업 전환 후 소득의 불안정성’과 ‘자영업 영위에 따른 고충’ 등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들은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들은 「중재적 조건」인 ‘개인연금 유지에서 오는 장점’과 ‘개인연금과 타 연금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 짐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전략」으로 ‘개인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경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자영업에 의해 달라진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개인연금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범주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자영업 전환 이후의 개인연금 해지 여부에 대한 중·고령 여성들을 6가지 항목에 대해 두 그룹 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전환 이후에도 개인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개인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자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생 전반에 대한 경제계획이 뚜렷하였다. 반면, 이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유형 간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자산관리 교육을 통한 개인연금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경제계획을 세워라”로 정리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의 개인연금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논의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연금 중에서도 유지율이 특히 낮은 연금저축 해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금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금저축은 연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계약자 신청에 따라 1회에 1년간, 최대 3~5회까지만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즉, 1회 1년을 넘기거나 유예신청 가능횟수가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이 실효되는 것이다. 이렇게 실효된 이후에는 계약자가 다시 연금저축을 부활시키고자 하더라도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전액 일시로 지급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형태 전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중·고령 여성들이 단기간에 소득을 안정시키고 연금저축을 부활시키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예신청 기간을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인연금의 유예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동으로 연금저축이 실효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금저축 부활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의 실효로 인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연금저축 실효를 경험한 가입자들이 다시 개인연금으로의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노동형태 전환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인한 위험(risk)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정부 정책으로는 크게 일자리 제공 사업, 실직자지원 사업, 자영업자지원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 사업 등이 있다(남은영, 2015). 이중, 이행노동 시장이론에서 언급되었던 (3) 고용 ↔ 실업 간의 이행으로 나타나는 사회

적 위험(social risk)을 줄이기 위한 실직자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는 실직상태에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만을 고려했을 뿐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노동형태가 변화함에 따른 소득의 감소와 이에 대한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노동형태의 전환이 중·고령층의 은퇴 이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써, ‘중·고령층 노동형태 전환 경제적 보조사업’과 같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물론,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정책이 전환에 따른 소득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고령 노동자들이 노동형태의 전환에 따른 소득의 감소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전환 시 나타나는 소득 공백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적연금을 어떻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 목적에 적용하는가이다(정창률, 2010).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를 예로 들자면, 독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보조정책의 실행과 동시에 국가가 직접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문용필, 2012)), 이때 개인연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적연금을 공적연금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공·사적연금의 가입률과 유지율을 동시에 올릴 방법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개인연금이 정착될 수 있는 시초를 마련하였다(류건식, 2012).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와 같이 공·사적연금의 연계를 통

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모색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률적인 개인연금 서비스가 아닌 유형별 연금 서비스의 접근과 함께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대상인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중·고령이라는 연령대와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자영업이라는 직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들에게 어떠한 요소들이 개인연금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또한 어떠한 정책 및 서비스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개인연금 서비스는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업종에 대한 혜택을 고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의 운영을 단순히 모든 국민에 대한 획일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제공으로써 인식하지 않고, 연령대, 성별, 소득수준, 업종 등의 유형에 맞게 필요성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유형별 개인연금 가입률과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과 유형에 맞는 적절한 개인연금 서비스와 함께 주기적인 연금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형식의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상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연금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즉, 교육을 통해 이들 스스로 개인연금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여야 하며, 또 교육을 통해 계획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조적인 방안으로써의 선택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의 한계로서, 연구의 대상자가 고용 취약계층인 중·고령 여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심리적, 정신적 결과를 데이터 수치로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즉, 실제로 중·고령 여성들이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노동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과적, 맥락적, 상호작용적 요인들에 대한 배경들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적 분석으로 인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의 한계로는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가 COVID 19이 성행하던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관계로 이 시기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 표본을 구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인터뷰 역시 대면 인터뷰가 아닌 전화 심층 인터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에 대한 기록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더욱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에게는 COVID 19은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어 연구결과가 특정 시기에 관한 결과인지 보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비제한적인 데이터 표본에 대한 확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성호·김경아. (2008). 역모기지 활용에 따른 가구유형별 노후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 효과분석 -거주주택 및 순자산의 역모기지 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3), pp171-198.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정책·경영보고서, 2016(1).
- 고용노동부. (2012). 2012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 권우현·박철성·조동훈·방글. (2014). 자영업의 고용구조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금융감독원(금감원). (2014).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
- 김경아·한정림. (2012). 국내 중·고령자의 공·사적 연금격차에 관한 연구: 근로유형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금학회, 2(2), pp143-169.
- 김상진. (2009).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2), pp1-28.
- 김소연. (2018). 상담자의 질적 연구 윤리로서의 윤리적 주체-되기. 질적탐구 4(2), pp57-95.
- 김영천. (2015). 질적 연구방법론 II. 아카데미프레스.
- 김재호. (2013).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기업의 개인연금 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24(4), pp3-29.
- 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2). 중산층에서 탈락한 개인들의 경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접근 -재진입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pp195-230.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원섭·강성호. (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김원식. (1996).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김혜영. (2014). 유통하는 한국가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pp255-292.
- 남은영. (2015). 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1(0), pp7-22.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류건식. (2004).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분석”, 보험개발원.
- 류건식. (2012). “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모색- 사적 노후소득보장 중심으로”, 한국사 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41-73.
- 문용필 (2012).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58, pp89-110.
- 박승민.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pp275-297.
- 반정호. (2014). 「1인 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한국인의 은퇴 준비 2018, 삼성생명.

- 보험연구원. (2017).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 보험연구원.
- 손연정. (2019). 제3장 중고령층 노동이동과 자영업 소득.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한국노동연구원), pp43-76.
- 송윤아. (2009), “개인연금 가입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RI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안종범 · 김재호. (2012). 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 지원이 개인연금가입과 유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002-1029.
- 안종범 · 전승훈. (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pp5-33.
- 여윤경. (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pp21-36.
- 우수명. (2015). 마우스로 잡는 SPSS 22. 인간과 복지.
- 윤수린. (2016), 한국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일자리 선호 요인, 한국노동연구원, 1-18차 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 이동성 외,.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pp1-26.
- 이민홍 · 전용호 · 김영선 · 강은나. (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세종: 보건복지부. 동의대학교.
- 이병희 외,. (2008).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
- 이우영. (2009).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이동과 직업훈련.
- 이정희. (2010). 근거이론방법론의 행정학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1), pp35-56.
- 장은진 · 안정훈 · 정선영 · 황진섭 · 이자연 · 심정임 · 이선희. (2013). 측정된 교란요인을 고려한 성과분석 방법. NECA 연구방법 시리즈. pp1-272.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 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pp95-121.
- 전승훈·임병인·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금융연구, 통권(47호), pp137-168.
- 정병석·박능후·김동헌. (2011). 이해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한국고용정보원.
- 정원석·강성호. (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8(2), 한국재정학회,
pp113~142.
- 정원호·나영선·류기락·박경순. (2011). 『이행노동시장 연구: 이론과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창률. (2010), “연금 체제(Pension regime)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한국사회복지학, 62(2), pp329-348.
- 정창률. (2010), “국민연금 기금의 근본 성격에 관한 연구: 다양한 위상과
가능성 고찰”, 사회복지정책, 37(1), pp51-73.
- 중소벤처기업부. (2016).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지은정. (2006). 중고령자의 퇴직 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
지원. 한국사회복지학회, 58(3), pp135-168.
- 차경욱. (2015). 개인연금 가입 결정과 납입액 규모 및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inancial Planning Review, 8(2), pp89-122.
- 최영준. (201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3), pp353-378.
- 통계청(KOSIS). (2015), 국내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 2020.3.20.
- 통계청(KOSIS). (2016), 국내통계>인구가구>인구총조사, 2020.4.13.
- 한겨레·김교성. (2019). 개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과 성별

차이. 사회보장연구, 35(1), pp151-179.

「 국외문헌 」

- Berrendt, C. (2002), Private pension- a viable alternative? Their distributive effec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3(3).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Cliffs, NJ: Prentice-Hall.
- Bryant, A. & Charmaz, K. (2007). The Sage handbook of grounded theory. London:Sage.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Aldine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Milliken, P. J., & Schreiber, R. S. (2003). “당신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없이 근거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신경림 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
- Morse, J. M. (2001). Situating Grounded Theory within Qualitative Inquiry. In Schreiber, R. S. & Stern, P. N.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eds.). 신경림·김미영(역)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Schmid. G. (2009). Transitional Labour Markets. from Theory to Policy Application.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nd Flexicurity: Managing Social Risks over the Life course. CES Working Papers.

- Schmid, G. and Gazier, B. (2002). The Dynamics of Full Employment-Social Integration Through Transitional Labour Markets, Cheltenham: Edward Elgar.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신경림(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Larsen, F. (2010), “An Example of Transitional Labor Market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 The Case of Denmar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LM and Employment Services, Seoul Job Center.
- Washington, S.P., Karlaftis, M.G., and Mannering, F.L. (2011) Statistical and Econometric Methods for Transportation Data Analysis, 2nd edn. Boca Raton: Chapman & Hall/CRC.

Abstract

The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of Self-employed Women over 45 in South Korea

- The Impact of Income Change due to
Employment Transition

ABSTRACT

Hyojin Mo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osition and unstable aging status of women at older ages in Korea and to review the insufficient reality of Korea's old-age income guarantee systems. To this end, a study on the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due to the self-employed transition of women at older ages wage workers was conducted. The study is divided into 'quantitative analysis' using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data' and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self-employed women at older ages.

First,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d on 'Transitional Labor Markets(TLM) theory', and examine the social risks resulting from the transition of the employment status by reviewing the 'income change' and the 'private pension maintenance rate' of self-employed women at older ages. Data from the 16th to 20th KLIPS was us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in order to compare the income status,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and the rate of private pension maintenance, data from neighboring years were merged and panelized. Next,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keep elder wage workers to maintain their personal pension despite they switched to self-employment.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bit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amount of income change of women at older ages who switched to self-employed, was about eight thousand dollars lower than women at older ages who maintained wage work. Secon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was -0.115 lower in women at older ages who switched to self-employed than who maintained wage work. The factors affecting the rate of private pension maintenance were labor income, age,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number of children, and real estate, but the educational pension membership, debt, and industry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he interview and the 'Grounded Theory' are as follows. First, a total of 72 concepts, 36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were driven in the 'open coding' stage. Second, the categories divided in 'Open Coding' were plotted in relation to causal conditions, phenomena, contextual conditions, interventional conditions, action / interaction strategies, and outcomes at the stage of 'axis coding' (see p82). Third, at the 'selective coding' stage,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and the key category for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was derived through 'relative'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of termination and retention women. The key category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interest of private pension through education on asset management and establish an economic plan.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above,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income decline of women at older ages who switched from wage work to self-employed, and as a result of the private pension maintenance were reduced as well. In addition, the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identified factors that caused self-employed women at older ages to maintain private pension.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return of private pensions is suggested for those who have been canceled. Second, as a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minimizing the risks of income loss due to the transition, the provision of a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transition of the old age employment" is proposed. Third, in addition to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for low-income families, a link between private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is proposed, in which the government regulates private insurance companies. Forth, the development of pension services by type of private pension and the regular implementation of asset management education from government for the underprivileged are suggested.

Key words : Women at older ages, Old-age income security, Private pension retention rate, self-employed transition, Transitional Labor Markets(TLM) theory, Grounded theory

Student Number : 2018-23512